

양희은·강석우의 여성시대

양희은·강석우의

양희은 · 강석우의 여성시대입니다
진행_양희은, 강석우
프로듀서_안재주, 홍지은
방송_MBC라디오 매일 아침 9:10~11:00
MBC인터넷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_02-368-1500~3,
문의_02-789-1339
주소_(150-604) 서울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400호 여성시대
표지_주명덕

2009 +02
February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10~11:00



CONTENTS

- 004 **여성시대가 흐르는 곳**
서울, 서울, 서울
- 008 **이달의 편지**
배낭 속의 사람들 외
- 052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
우리 엄마는요, 특별한 엄마예요
- 058 **행복을 찾는 사람들**
미래 신 성장 동력산업을 이끄는 프런티어 기업
- 065 **여성시대 꾸러미**
자기가 왜 거기 누워있어? 외
- 076 **아버지의 육아일기**
딸의 변화
- 079 **성장보고서**
칭찬의 기술
- 082 **부부클리닉**
기초 예절이 부부를 지킨다
- 086 **요리보고 사연보고**
우거지 돼지등뼈 감자탕
- 090 **대중문화 산책**
80년대의 귀환
- 092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선여덟 나의 기도는
- 094 **강석우의 스튜디오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 096 **홍PD의 창과 창 사이**
첫 세배
- 098 **한 장의 생각**
빈센트 반 고흐의 <꽃이 핀 아몬드 나무>

2009.02 +February 여성시대/월간지/비매월/2009년 2월호 발행_2009년 2월 10일 발행인_(주)문화
방송 대표이사_엄기영 등록번호_라-5413 편집·제작_B&M 커뮤니케이션(02-
2272-6046) ※본지는 한국 도서윤리 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서울, 서울, 서울

경남 김해시 강봉순 씨 가족의
서울나들이

❀ 서울이라는 곳에
첫발을 내딛은 날은 우리
가족을 환영하기라도 하는 듯
흰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김해는 눈이 귀한
곳이기에 서울에서 맞는 눈은
더욱더 각별했습니다.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탄 아이들의
눈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호기심 가득 담은 눈망을
이었지요. 그렇게 이박삼일의
서울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행의 발단은 여성시대입
니다. 서울 땅을 밟아보지 못
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방
송을 타고 나갔고, 방송을 들
은 여성시대 애청자인 이남순
님이 서울 구경을 제대로 시





“서울은 정겹고도
아름다운 곳이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준
도시입니다.
서울이 우리 가족들 마음
속에 들어왔습니다.”



켜주겠다 하여 시작되었지요. 사실 일면식도 없는 남에게 부담을 주는 건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시대를 중심으로 모인 든든한 어깨동무인 우리였기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데는 그다지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으로만 보았던 63빌딩,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서울타워, 눈 덮인 경복궁, 청계천의 야경, 서울박물관, 올림픽공원, 북악산 팔각정, 청와대, 동대문과 남대문, 사람들의 물결인 명동으로 우린 옮겨 다니며 '서울 제대로 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큰아들 병준이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서울 나들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비록 이박삼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서울은 이미 우리 가족들 마음속에 들어왔고, 내내 우리 곁을 지켜주신 이남순 님은 이제 남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서울은 제게 정겹고도 아름다운 곳,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준 잊지 못할 도시가 되었습니다. 서울이여 안녕! ♥



배낭 속의 사람들

글_정인규 |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평 소처럼 알람시계 소리를 듣고 일어나 머리를 감고, 향수를 뿌립니다. 왜 향수를 뿌리냐고요? 늙으면 냄새가 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매일 향수를 한 방울 뿌립니다.

그때 예순을 갓 넘긴 아내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반찬은 무엇으로 준비할까요?”

“알아서 해.”

통명스럽게 한마디 던지고 일터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으면 아내가 반찬통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반찬을 배낭에 넣으면서 평생 변함없이 내조를 해준 고마운 아내의 모습과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귀여운 손녀의 모습도 함께 담습니다.

일터에 도착해 배낭 속에 담긴 반찬통과 함께 아내와 손녀의 모습을 꺼낸 다음 제복을 갈아입고 나면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처음 경비를 할 때는 죄지는 사람처럼 제대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힐끔힐끔 주위를 둘러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쭉스러운 마음이 앞서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성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Letter 01_ 배낭 속의 사람들

Letter 02_ 자판기처럼 살리라

Letter 03_ 여보, 기다려주오

Letter 04_ 성이 바뀌는 조카

Letter 05_ 버스 안 풍경

Letter 06_ 나는 누구였던가

Letter 07_ 나이 서른에

Letter 08_ 아들이 부러워

Letter 09_ “떡 사세요”

Letter 10_ 여탕 매장에서

Letter 11_ 아내의 마지막 길을

Letter 12_ 어머니의 율레

Letter 13_ “딸아! 너도 왕언니라고 부르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비원 주제에 뭘 성공했다고 하느냐’고 코웃음을 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일이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를 만큼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권력이나 재물을 떠나 성공한 사람 아닌가요?

아침 청소를 마치고, 9시가 좀 넘으면 나의 인생 동반자가 되어버린 여성시대를 2시간 정도 들은 다음 밖으로 나와 새댁들이나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니다.

애엄마가 아이에게 “아저씨한테 배꼽인사 해야지” 할 때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할아버지한테 배꼽인사 해야지?” 하면 속으로는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예순다섯 살이니 할아버지가 맞지만 마음이 언짢습니다. 이런 걸 주책이라고 하나 봅니다.

이쪽에는 “할아버지한테 배꼽인사 해야지?” 하는 애엄마가 아이와 같이 걸어오고, 저쪽에는 “아저씨한테 배꼽인사 해야지?” 하는 애엄마가 아이와 같이 오면 얼른 아저씨라고 부르는 쪽으로 가서 인사를 받습니다.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후 5시가 되면 순찰을 돕니다. 왜냐고요? 대개 절도범들이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활동하기 때문에 경계를 강화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열 사람이 도둑 한 사람을 못 지킨다고 간혹 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둑놈들은 높고 낮은 층수를 불문하고 20분 이내에 물건을 훔친다고 하더군요. 주로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해 훔쳐가기 때문에 방범창을 튼튼히 하면 도둑맞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24시간을 보내면 교대시간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빈 반찬통을 배낭에 담으면서 아저씨 또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는 애엄마들과 아이들의 모습까지 배낭에 담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간밤에 속 썩이던 술주정뱅이의 모습도 담습니다. 또한 클레오파트라 같은 미모에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부녀회장의 모습도 배낭에 담습니다.

부녀회장은 늘 나이 많은 경비아저씨들에게 웃으면서 “힘드시죠?” 하며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 모습을 배낭에 담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배낭 속의 사람들로 인해 내 생활은 활력에 넘치고, 희망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



자판기처럼 살리라

● 글_김순자 | 전남 순천시 조례동

은 행에 가다가 아는 동생을 만났다. 그런데 웬지 아파 보였다.
“젊은 나이에 암이라니 못 믿겠어. 었그제 암수술을 받았어.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암이라는 동생의 말에 순간 난 ‘멍’ 하니 서 있다가 은행으로 따라 들어갔다.

“조금 전에 뭐라고 했지? 암수술? 어디를? 지금은 어때?”

한참을 흥분해 떠들다가 동생에게 무슨 차를 마시겠냐고 했더니, 울무차를 마신다고 했다. 나 역시 울무차를 고르고 말없이 자판기를 보러보았다.

‘자판기는 정직하구나. 돈 넣고 버튼 누른 대로 나오니 정직 그대로야. 그런데 우리 사는 세상은 노력한 만큼 안 되고... 왜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지?’

그때 동생이 말했다.

“언니는 건강해 보여서 좋아!”

“밝게 사는 게 이유겠지.”

“열심히 일하는 언니 모습을 본받고 싶어.”

나보다 한참 어린 동생인데 병은 나이순이 아니었다. 누구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 성장하고, 결혼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삶들. 앞으로 어떻게 늙어갈지, 어떤 모습으로 노후를 맞을지 모른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건강한 삶을 사는 건 아닌가보다.

이상하게 내 주위에는 암에 걸린 젊은 사람들이 많다. 다들 남을 배려하며

착하게 사는데 말이다.

젊어서 혼자 된 엄마는 오빠들을 엄하게 키웠다. 그런데 나한테는 더 엄했다. 당시 우리 집에서는 담배를 팔았는데, 엄마는 늘 장롱 문을 잠갔다. 어느 날, 마을 어르신이 담배를 달라고 해서 꼬챙이로 장롱 문을 열고 담배를 꺼내줬다. 난 엄마가 모를 줄 알고 40원을 꺼내 친구와 풀빵을 사먹었다.

그날 저녁, 돈을 세어본 엄마는 40원이 부족하다고 했다. 난 무릎을 꿇고 엄마에게 빌었다.

“너, 어디서 배운 행동이야? 감히 담뱃값으로 풀빵을 사먹어? 너는 앞으로 좀도리쌀도 중단하고, 용돈도 없어. 밥을 굶고 살아도 정직해야지. 절대 용서 못해.”

엄마는 진짜 무서웠다. 단돈 10원이라도 속이거나 노력 없이 달리는 것은 주지 않았다. 난 성장하면서 엄마한테 성실과 정직 그리고 인내를 배웠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했다. 엄마가 걸어 온 종갓집 며느리 자리였다. 엄마에게 나도 종갓집 맏며느리가 된다고 하니깐 엄마는 참는 법과 꼭 해야 될 일, 배워두어야 할 일 등을 일러주시며 눈물을 흘렸다.

“반에서 반, 또 반에서 반을 접어라.”

살다보면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을 때, 접어야 되고 그래도 정직하게 살다보면 결과가 있을 거라 위로를 하시며 딸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다.

30여 년이 흐른 지금 너무 정직하게 살아서 가난하게 사는지도 모르겠다. 남편이나 나는 누굴 속이거나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직 이 모양이다.

그래도 안심이 되는 건 가족이 건강하니까 희망이 보인다. 올해는 웬지 잘 풀릴 것 같고, 통장에 플러스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자판기처럼 정직하게 살리라. 노력의 대가만 바라며 살아가리라. ♥



여보, 기다려주오

● 클_이상근 | 경남 마산시 구암동

2005년 9월 25일 오후 4시 30분. 차량 운행도중 걸려온 전화를 받았
다. 그런데 말이 없었다. 짜증이 묻어 있는 큰소리로 “여보세
요?” 하자 들려오는 흐느끼는 여자의 음성. 그것은 아내의 목소리였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받아보래.”

아내가 울면서 말했다. 6개월 동안 수시로 통원하면서 약을 타다 먹고 잘 지
냈는데, 갑자기 큰 병원에 가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간신히 마음을 달
래고 아내에게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안심시키고, 조퇴를 하고는 급히 병원으
로 갔다.

의사는 얼마 전 찍은 초음파사진을 보여주며 6개월 전에 촬영한 사진과 비교
하면서 종양이 의심되니 대학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해보라고 했다. 사실 3월
중순부터 그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빈혈이라는 병명이 나와 통원치료를 하면
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예약을 하고 부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갔다. 검사 결과는 급성 골수성 백혈
병. 당장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난 어찌할 바를 몰랐
다. 직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내와 같이 병원생활에 들어갔다.

한편으로는 한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황당하기도 하여 아무 생각도 나질 않
았다. ‘백혈병!’ 말로만 들었는데, 내 아내가 그런 병에 걸렸다는 현실에 눈앞

이 캄캄했다.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 중 백혈병 환자가 여러 명 있었다. 정보를
교환하고 위로도 하면서 병원생활을 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4-5일은 잘 지냈는데, 일주일 후부터 머리카락이 몽텅
빠졌다. 구도와 설사에 입안은 부르트고 물 한 모금도 못 먹었다. 결국 무균실
로 이송된 아내는 혼자 병마와 싸우게 됐다. 참을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 그리
고 괴로움. 백혈병이 이토록 무서운 병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

매일 생사의 길목에서 헤매는 아내의 모습은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볼 지경이
었다. 시간이 흘러 11월 말경 아내는 조금 회복이 됐다. “위험한 시기는 지났고,
많이 호전됐다”고 의사가 말했다. 입원한 지 3개월. 의사는 이제 퇴원해 집에
가서 기본전환을 한 후 다시 입원 치료를 하자고 했다.

의사의 표정이 밝아보였다.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의사는 이 상
태로만 유지된다면 완치할 수 있다고 했다. 기뻐다. 그러나 집에 온 지 열흘쯤
지난 뒤 갑자기 열이 나고 고통이 시작되는 등 아내의 상태가 나빠졌다. 급히
응급실로 향했다.

백혈병이 재발되었다고 했다. 정말 기가 막혔다. 또 항암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는 1차보다 농도가 높은 것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병
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 중 1차 항암치료 후 조혈모세포를 이식해 퇴원한 사람
도 있는데, 아내는 왜 재발하였는지 정말 안타까울 뿐이었다.

누군가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옮겨 보라고 말했지만 당장 돈이 없으니
선뜻 행동에 옮기지도 못했다. 집도 팔리지 않았다.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다.

2차 항암치료 후 다시 발병하고, 3차 치료 후 또다시 발병하고... 모진 고통
과 아픔이 이어졌다. 몸에 난 털은 하나도 남김없이 빠져버렸다. 무균실을 4번
이나 들락날락하면서 아내의 몸 상태는 점점 쇠약해져 갔다. 그렇게 건강하고
예뻐고 아름다웠는데...

2006년 6월 중순경 담당의사와 면담이 있었다. 현재 의학으로 할 것은 다 해 보았으며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최후통지를 받았다. 길면 6개월이고 짧으면 3개월이 생존기간이라고 했다. 정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대로 보내야 하는구나.’ 이제 기껏 55세일 뿐인데... 아직은 아닌데... 한숨만 나왔다.

아내에게 장염을 비롯해 치주염·후두염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했다. 멀쩡한 치아가 다 빠지고, 온몸은 푸룩푸룩 피멍이 들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가는 아내의 모습. 매일 수혈을 받아야 했다. 급기야는 일어서지도 못해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시간이 3개월. 폐렴이 발생해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산소호흡기로 겨우 숨을 연명해 가는 상황. 이대로 죽어야만 하는가. 남편으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그저 쳐다만 봐야 하는 이 심정. 지금도 내 가슴 깊은 곳에 박혀 있는 아내의 말이 있다.

“돈 없는 사람은 죽어야 되나 봐.”

정말 피가 마르는 것만 같았다. 담당의사는 “이 환자는 아주 특이한 병균을 지녔어요. 어디에 가도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라고 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 수 없는 너무나 재수가 없고 억울한 현실이었다. 가끔 이런 환자도 있다고 한다.

하루를 약물과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아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아내의 삶. 급기야 아내의 결단을 내렸다.

“이러다가는 내가 살아나지도 못 하면서 남아 있는 우리 가족 못 살게 만들겠다.”

아내는 모든 약물 치료를 거부하면서 죽음을 인정하고 하루 빨리 집 가까운 병원으로 가자고 했다. 이미 죽음을 인정했으니 한 푼이라도 병원비를 줄여야 한다며 집에 가자고 재촉했다.

한때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아내는 그 참기 어려운 고통과 괴로



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약한 알이라도 꼬박꼬박 정성스럽게 챙겨 먹고 이를 악물고 견뎠다. 그러나 그 활기찬 모습은 어디가고 이제는 그저 가쁜 숨만 내 쉬며 죽어가고 있었다. 남아 있는 가족들을 걱정하는 그 착한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당신, 허리가 좋지 않은데, 항상 주의해”라는 당부의 말, 결혼 못한 아들 걱정, 시집 간 딸 걱정. 정말 아내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죽는 그날까지...

아내를 만난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둘만의 여행을 갔다. 강원도 정동진 해돋이의 그 황홀한 광경에 소녀처럼 내 손을 잡아끌고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던 그 순진한 아내의 모습. 강원도 정동진에서 동해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곳저곳

을 둘러보며 아내는 “당신과 결혼한 것을 후회했는데, 이제부터는 당신을 내 진정한 신랑으로 인정하고 매우 만족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하면서 즐거워했다.

“그래요, 우리 앞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 명승고적을 여행해요.”

우리는 손가락을 걸며 맹세했다. 2006년 8월 그 여행이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이야. 지금도 아내와 함께한 그날의 사진을 보면 눈물만 난다. 아내 없는 내 삶은 희망도 없고, 보람도 없이 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

내 나이 63세.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신세. 일 년 동안 아내의 병간호를 하면서 한때는 지겨웠고, 힘들었고, 원망도 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는 아내의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아야 했던 그 시절. 차라리 완치될 수 없다면 하루빨리 끝이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죽지 말고 그저 살아만 있었더라도 좋았을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안 타까울 뿐이다.

어제는 아내의 산소에 가 보았다. 아무리 통곡하고 애타게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다.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여! 넋을 잃고 무덤에 누워 있으니, 한 없이 눈물만 쏟아진다. 아내도 내가 이렇게 슬픔에 빠져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그곳에서 아프지 말고 고통과 슬픔 그리고 괴로움도 없이 언제나 즐거운 나날이 계속되길 간절히 빌어본다.

‘여보! 신정옥 씨, 우리들의 결실인 아들 이정훈이 꼭 좋은 배필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도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고 보니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결심했는데요. 언젠가는 나도 당신 곁에 갈 테지만 그날이 언제 일지 알 수는 없소. 우리 아들 결혼 후, 나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갈 겁니다. 여보! 정말 미안하오. 이승에서는 이렇게 끝났지만 저승에서 우리 다시 만나 행복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부디 아프지 말고 잘 지내오. 다시 만날 그 날까지 당신의 명복을 빌어요.’ ♥



성이 바뀌는 조카

● 글_박상순 | 전북 군산시 조촌동

올케는 스물넷의 어린 나이에 아홉 살이나 많은 동생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멀리 충북 충주에서 살던 올케가 군산 친구의 결혼식에 왔다가 동생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올케는 은행에 다녔고, 동생은 나이도 많고 직장도 별 볼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벌어 먹인다”고 큰소리치며 매일 전화하고, 서로 오가며 사랑을 키웠습니다.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일 년쯤 지나 결혼을 한다고 했지만 장모되실 분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먼저 보내고 딸을 의지해 살아왔는데 멀리 사는, 그것도 나이도 많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남자한테 시집을 간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분은 모진 말들을 해가며 죽기 살기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정성을 쏟다보니 결혼을 허락하시더군요.

그 후부터는 일상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힘들게 한 결혼이 엇기에 둘은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결혼 2년 후, 올케의 배가 남산만 해질 때쯤 동생의 턱 밑에 조그만 혹이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 비인두강암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말을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망연자실할 때 “나도 알아”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구두를 신고 걸어가던 동생의 뒷모습이 가슴 찢어지게 시리고 아팠습니다.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올케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항암제

를 먹어가며 치료와 요양을 하는 동안 5개월째부터 조카를 우리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오십이 넘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모두 장성하고 조카가 생기니 식구들이 기뻐했습니다. 뒤집기할 때는 모두가 신기해하며 좋아했고, 말을 할 때는 너무나 예뻐했습니다. 고모부를 ‘마부’라고 부르면서 줄줄 따라다녔고, 아궁이에 불을 댈 때는 냉지 말라고 해도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좋았는지 자꾸만 장작을 넣는 모습까지 예뻐했습니다. 처마 끝에 낙엽이 쌓여 지붕 위로 올라갔을 때는 하늘을 쳐다보며 무섭다고 소리치던 그 모습도 귀여웠습니다.

원래 간염 보균자였던 동생은 2년 투병생활을 하다가 간으로 암이 전이되어 항암제 치료 중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착하고 똑똑하고 버릴 것 하나 없는 올케 나이 서른하나. 사랑하는 사람을 한줌의 흙으로 떠나보내고 그 사람의 그림자를 그리며 차마 떠나지 못하고 시어머니하고 2년을 더 살았습니다.

올케, 어머니, 조카가 동생이 없어도 외식도 하고, 목욕탕에도 함께 갔습니다. 함평나비축제도 셋이서 가고 삼겹살도 먹으면서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웃어도 밤에 속으로 흐르는 눈물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가의 잔주름에 통통 부은 눈이 그 슬픔을 말해 주며 가슴을 아프게 하더니만 어느 비오는 여름날에 조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올케와 시누이 사이가 아니라 남이더군요. 전화를 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고, 먼 하늘만 보고 생각하는 날이 많아졌지요. 보고 싶다고 볼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외할머니가 미워하지나 않는지, 쥐어박지나 않는지 별별 이상한 생각이 들고, 안쓰러운 마음만 앞섰지 찾아가지도 못하고 세월만 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올케가 두 살 많은 총각하고 결혼한다며 찾아왔습니다.

동생 기일에는 조카가 있으니까 꼭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케 나이 이제 서른다섯, 꽃다운 나이죠. 모두가 서운해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음을 알고 축하를 해줬습니다. 마음속으로 잘살기를 빌면서요.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동안에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출산을 하고 100일이 되어서야 딸을 낳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한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어찌하여 너하고 나하고 이런 사이가 되었느냐. 전화도 할 수 없는 사이가...” 하면서 울었습니다.

조카가 올케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을 바꾼다고 하네요. 법원에 신청했다며 법원에서 연락이 와도 놀라지 말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들여야 하면서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입학식에는 가보고 싶은데, 그쪽 신랑이나 누가 알면 어떻게 조심스러워지는군요. 먼 훗날 조카가 성인이 되어서 ‘박씨’라는 뿌리를 찾아와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



버스 안 풍경

● 글_배문현 | 충남 논산시 내용

충남 논산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마흔네 살 먹은 사람입니다.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겪다보니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논산은 시라고는 하지만 아직 농촌이기에 어르신들께서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한적한 시골을 다니다보면 60세는 아기, 70세는 한창 때, 75세는 청춘, 80세는 장년, 90세는 왜야 어디다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70대인 분들은 버스에 올라서기 무섭게 형님, 아저씨들께 문안 인사 여쭙기 바쁘지요. 좌석에 앉는 것은 언감생심. 그래도 80세 이상은 왜야 좀 불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9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이 타시면 재빨리 양보를 해야하니깐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다보니 저 나름대로 어르신들 특징을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째, 남자들은 80세가 돼도 생일을 따져가며 형님, 아우를 정하려 합니다. 가끔 연무대에서 친구뻘 되시는 어르신 두 분이 타면 이런 말씀이 오갑니다.

“이놈, 박가야. 마누라 품이 그리도 좋더냐? 요즘 통 못 보겠다.”

“어허! 이놈 형님한테 못 하는 소리가 없네. 니 형수님 저 뒤에 앉아 있으니 가서 인사하고 와라.”

“허 이놈. 생일 석 달 빠른 것 가지고 80년을 우려먹고 자빠졌네.”

“어허! 이놈 봐라. 오늘월 하루 별이 어딘디. 너 응애 하고 낳았을 때 난 곁을 마 했다이눔야.”

이렇게 옥신각신하며 버스에서 다투십니다. 남자들은 늘 생일을 들먹이고, 호적을 잘못 올렸네 하면서 친구끼리 형님, 아우 따집니다. ‘아! 나도 저 나이에 저렇게 다투가며 막걸리 한 잔 하며 인생을 마무리할 친구가 몇이나 있나’ 하고 생각해봅니다.

둘째, 세계 3대 거짓말 중 하나인 어르신들의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말 있죠. 그 거짓말이 참말이라는 것입니다. 꽃감으로 유명한 대둔산 끝자락 양촌에서 힘겹게 버스에 올라오신 90대 할머니는 “아이고 힘들어. 늙으면 죽어야 하는데” 하면서 차표를 찾습니다. 시골이라 카드가 보편화 돼 있지 않거든요. 할머니는 치마를 내려 속고쟁이에서 옷핀을 끌러 차비를 내시고는 “기사 양반! 시내 새로 생긴 병원, 거기가 용하다던디 거기다 내려주구려. 요새 통 밥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해서 링게루 한 대 맞아야겠어” 하시며 앉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서 로또 용지가 보이기에 “할머니, 로또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잉! 할망구라고 못 하라는 법 없잖여. 되면 맞난 것도 사먹고, 둘째 사업 자금도 대주고, 막내딸 아파트도 사줄겨” 하십니다. 부모 마음은 늙어서도 다 그렇구나 하고 웃음을 짓지요.

셋째, ‘어르신들은 사랑을 모른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가끔 제 차를 타시는 70대 이주머니가 매일 타던 곳에서 안 타고 몇 정거장 지나서 타기에 “아니, 이쭈니. 워디 갔다 오시기에 여기서 탄데유” 했더니, “응, 딸네 집에 갔다와” 하시며 얼굴이 빨개지십니다. 그리고는 뒤 2인용 좌석에 젊잖은 영감님과 나란히 앉아 계시더군요. 웬지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두 분 사랑으로 여생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시내버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지요. 대부분 힘없고 돈 없는 서민·학생·노인들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민 대부분들이지요. 대한민국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잊지 말고 힘내시고 파이팅 합시다. ♥



나는 누구였던가

● 클_애청자

“김정호 씨 아십니까?”

“제 아들인데 왜 그러시죠?”

“여기 분당 ○○병원 응급실인데요, 아드님이 구급차에 실려 왔습니다. 검사도 받아야 하고 수술도 해야 되는데, 직계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긴 부산이라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검사하고 수술해주시면 안 될까요? 빨리 올라갈게요. 그런데 사고는 어떻게 났습니까?”

“저희가 아는 것은 22층에서 추락했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난 털썩 주저앉았다. 22층이라니 죽게 생겼다는 소리가 아닌가.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의료보험증을 챙기고 있던 중이라 바로 불러주었다. 서울에 사는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당부했다. 병원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친척 동생이 도착해서 보니 검사중이라 얼굴을 못 봤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겠다고 했다.

마음이 급했다. 서둘러 올라가 응급실에 도착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우린 막무가내로 들어갔다. 아이를 만지자 손에 시뻘건 피가 묻어났다.

결국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로 아들은 부산에서 올라온 가족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떠나 버렸다. 이별할 수 없는 마음의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말이다. 슬피 울고 있는 내게 동생이 와서 말했다.

“언니, 울지 마.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 형부·동생들과 친척들이 애들 생모를 불러야 하지 않겠냐며 옥신각신하고 있어.”

아랫동서가 들어오더니 힘들게 말했다.

“정호가 가는 마지막 길인데, 생모를 불러야 되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다. 우리 아이가 28세인데 3세 때 헤어진 엄마를 불러야 되겠다니. 그러면 지금까지 아들 생모와 연락이 오갔단 말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애들 돌보는 보모인가? 어느 틈엔가 나는 눈물이 콧 들어가고 초긴장상태가 됐다. 술이 많이 취한 시동생이 오더니 다짜고짜 “형수, 왜 내 생일 한 번 챙겨주지 않는 거요. 만일 형님이 형수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가면 그날부터 난 형수 안 볼 거요” 했다.

처음 남편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가 생각난다. 시어머니가 혼자 떨어져 일곱 식구가 살고 있었다. 아빠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두 명의 아들은 마치 구걸하는 아이들 꼴이었다. 머리는 뺨뿔뿔 자르고, 잘 씻지도 않아 얼굴이 며묵, 손 등은 거북 등짝에 비유해도 좋을 정도로 많이 갈라져 있었다.

아빠와 같이 온 나를 안 쳐다보는 척하면서도 곁눈으로 은근슬쩍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계면쩍게 웃는데, 그 모습이 내겐 아주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러워 보였다.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은 아빠 양쪽 팔에 붙어 말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난 그게 우스워서 피식피식 웃고 말았다.

버스가 도착해 가려고 하니 아이 둘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아빠의 발걸음이 무겁게 말이다. 그때 난 두 아들과 약속했다.

“이 이쭤마가 1년 후에 너희 둘의 엄마가 되어 데리러 오겠다.”

그 약속을 2년이 지난 후에야 지키게 됐지만 편견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지는 않았다. 연년생인 사내아이들을 키우는 걸코 쉽지가 않았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들어온 우유를 파약하고 가정집에 다 돌리고, 슈퍼마켓까지 다 돌리면 아침 7시가 됐다. 도시락 2개 싸주고 아침 챙겨 먹이고, 8시 30분까지 회사로



출근했다. 저녁 6시에 퇴근하면 빨래와 청소는 물론이고 싱크대에 수두룩하게 담겨있는 설거지 그릇을 다 씻어야 했다.

20년을 그렇게 살았다. 친정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이었기에 남보다 두 배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다. 그런데 큰 아이가 세상을 떠난 순간, 이 가족은 왜 내게 많은 것을 원했는지 감당조차 안 된다.

사망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가서 안 사실이지만 아이 친모는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고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아이의 통장을 들고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잔금 3,000만 원을 청구했더니 생모가 아니라서 내줄 수 없으니 친부가 직접 와서 청구해 달라고 냉정하게 말한다. 은행에서 현실적인 요구와 호주제도로 일어난 일로 아이를 잃고도 아이를 잃은 슬픔보다 내가 받은 상처로 한 달간 앓았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상처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었으면 한다. 무엇을 바라서 헌신하며 보살핀 것은 아니다. 그냥 가족으로 인연이 되었으니까 남보다 못 사는 것이 싫어서 열심히 살며 옆도 못 돌아봤다고 그런 식으로 대우하면 안 되지 않은가. 그러는 분들은 내 생일이나 이는지 궁금하다. 내가 참불쌍하다. ♥



나이 서른에

● 글_애청자

일 자리를 잃고 난 뒤 맞는 이번 겨울은 몹시 춥습니다. 해고당한 날부터 부지런히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나이가 서른인지라 연락이 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대학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통 못 봤는데 얼굴 좀 보자면서 동기모임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더군요. 친구들 사는 모습도 궁금하고 해서 그날 꼭 가겠노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보니 마음이 이상하게 무겁더라고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일까요?

제가 생각했던 제 서른의 모습은 자가용을 운전하며 빛나는 하이힐을 신고 사무실에서 멋지게 일하는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실업자 신세. 또 서른쯤이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따뜻한 가정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른이면 좌충우돌하던 내 생활들이 얼마만큼은 안정될 거라 믿었는데, 눈에 주름만 늘었지 어느 것 하나 진척된 게 없었습니다. 자신감은 떨어져 바닥을 쳤고, 그래서 동기모임에 나갈까 말까를 백 번 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당일 친구들의 재촉전화가 결국 저를 모임장소로 이끌더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정말 반가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캠퍼스 시절 이야기도 하고 현재 사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우리는 영문과 동기입니다. 두 친구는 영어교사가 되어 있었고, 한 친구는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을 하고, 또 한 친구는 번역 일을 하고, 나머지 한 친구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이번 가을에 들어왔다 하더군요.

그때 마침 “과답(과에서 1등) 너는 지금 뭐하고 있니?”라는 동기의 질문에 저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어, 지금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

“애인은 있고?”

“어, 아직 없네.”

“아, 막막하대야” 하며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다더군요.

동기 둘은 결혼했고, 또 둘은 남자친구가 있고, 또 한 명의 동기는 곧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동기가 건네는 청첩장을 받아드니 취업이야기에 1차로 처졌던 제 어깨가 완전히 오그라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직장 없고, 결혼 못했고, 모아둔 돈도 없고, 나이는 서른인데 저는 어느 것 하나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날리고 혹은 대학 시절처럼 서로에게 기대어 위로 받을 수 있을까 내심 기대하고 나간 자리였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닫히고 말았네요.

스물이홉까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서른이라는 나이가 되고 보니 직장도, 결혼도 다 막막하게만 보이는 겁니다. 청춘은 이미 제 몸에서 다 빠져 나간 것만 같고요. 동기들은 혼수 이야기 혹은 내 집 마련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던 저는 그저 멍하니 듣고만 돌아왔습니다.

직장을 잃고 쉬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지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요즘 사진 잘 찍는 사람 많지만 저도 웬만큼 찍는다는 소릴 들었거든요. 동기모임에서 앞으로 사진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 대부분의 반응이 ‘넌 이십대에 할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니?’ 였습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서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 생각만 많아서 정작 실천은 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



아들이 부러워

● 글_김상록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췌 아 하고 물 흐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옆을 보니 어느새 아내 는 일어나 두꺼운 옷을 걸치고 맑은 유리컵에 우유를 반쯤 따라 전자 레인지에 넣어 데우고 있었다.

‘흠, 캔스레 핫기침을 한 번 하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컵 마시고 나니 머리에 하얀 수건을 두른 아들 녀석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언제부턴가 이 녀석 얼굴을 한 번이라도 살펴보려면 고개를 들어 한참을 올려다봐야 한다. 나는 162센티미터, 아들은 184센티미터. 그나마 젊어서는 165센티미터는 되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자꾸만 줄어드는 키가 원망스럽다.

아들은 엄마가 꺼내주는 우유 잔을 한 손에 들고 허겁지겁 숨도 돌리지 않고 마셔버린다.

“야, 좀 천천히 마셔라. 그러다 체하면 어쩌려고...”

녀석은 대답이 없다. “출근 준비하는 새벽 시간은 일초도 아껴야 한다”는 녀석이 언젠가 내뱉은 말을 떠올리며 대꾸가 없는 아들이 조금은 서운했지만 내색하지는 않았다. 아들 주위를 맴돌면서 이 녀석 하는 짓을 바라본다. 사각팬티 하나만 걸친 채 로션을 손바닥에 쓱쓱 문지르더니, 얼굴에 착착 소리를 내면서 바르고 머리에 쓴 축축한 타월을 벗기고 정수리에 꽃꽂이처럼 서 있는 몇 올의 머리카락을 손바닥으로 푹 눌러준다. 머리카락 정리하는 데 한 2분쯤 걸렸나? 지금까지 내가 본 우유 먹기나 로션 바르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소매가 있는 하얀 속옷을 입고 그 위에 하얀 와이셔츠를 걸친다. 그리고 검은 바지를 입더니 와이셔츠와 함께 걸려 있던 빨간색에 군데군데 반짝이는 무늬가 들어 있는 넥타이를 익숙한 솜씨로 맨다. 한 번에 성공한다. 나는 내 평생 넥타이를 대어섯 번 매 봤나? 무척 어렵게 배운 건데 매번 맬 때마다 요상하게 뺄뚱어지고 각이 잘 안 맞아 애를 먹는데 아들은 한 번에 성공시킨다.

소매에 있는 단추를 무시하고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네모난 핀으로 소매를 고정시킨다. 저건 또 뭐야? 소매가 각이 서서 그 핀이 반짝거리는 게 보기는 좋다. ‘참, 세상 살다보니 별놈의 짓이 내 기를 다 죽이는구나’ 생각하면서도 아들한테 묻지를 못한다. 왜? 한 마디라도 말하는 시간을 줄여주어야 하는 새벽 출근 시간이니까.

거울 뒤에서 멀뚱히 자기 하는 모양새를 요리조리 고개를 돌려가면서 흘깃 거리는 아버지를 이제야 보았는지 희미하게 웃음을 보내준다. 후후, 아까 대꾸가 없어 오그라든 마음이 이 녀석 미소한 번에 싹 풀린다. 그 사이 아내는 아들의 구두 두 켤레 중 약간 갈색 구두를 꺼내 장갑을 끼고 광을 내기 시작한다. 아 내가 조용히 콧노래를 부른다. 아들 출근시킬 때가 하루 중 제일 행복하다는 아

내. 내가 30년 동안 풀어주지 못한 소원을 내 아들이 한 방에 풀어주고 있다. 말 없이도 두 모자는 손발이 척척 맞는다.

바지에 와이셔츠를 잘 펴서 넣고 지퍼를 올리고 벨트로 마무리를 하고 나니 내 아들은 어느새 준수한 넥타이맨이 되어 잘생긴 얼굴이 더욱 돋보인다. 그 위에 검은 양복을 입고, 코트를 걸치고, 서류가방을 어깨에 메고는 엄마가 파리가 붙으면 낙상할 정도로 정성스럽게 광을 내 놓은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서는 순간 겨우 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다녀오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화장실에서 불일 보고 샤워하고 나오는 시간이 5시 20분. 우유 마시고 단장하고 나가는 시간은 딱 15분 만에 끝이 난다. 일 년째 정확하게 5시 35분이면 집을 나서는 아들의 뒤를 따라 나선 아내는 계단을 내려가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2층 복도에 서서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고 있다. 새벽바람 가르며 농장으로 출근하는 나를 내보낼 땐 현관 앞도 아닌 주방에서 서 얼굴도 마주하지 않고 “땡겨와요” 그 한마디면 끝이었는데, 어휴 서러워라.

출다고 하면서 호들갑스럽게 문을 열고 종중걸음으로 들어오는 아내를 한

번 흘겨보고 인방으로 가서 다시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 납작 엎드려 있으니 차디찬 손을 이불 속에 쑥 넣고 아내가 묻는다.

“뭐가 새벽부터 못마땅해서 자꾸 힐끔거려?”

“아니, 뭐. 못난 내가 뭐 성질 낼 거라나 있잔디?”

“도대체 뭐가 문젠디?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말해봐.”

“아니라니까.”

“내가 당신하고 한두 해 살았나? 30년 세월 살면서 터득한 것이 당신 눈치 보는 거였는디, 인자는 당신 꾀꿉힌 뒤쪽지만 봐도 승질이 났는지 다 아는구먼. 후딱 말해봐. 5분 시간줄팅게로.”

“그려. 당신은 아들 출근시키는 디 왜 나하고 차별하는가?”

“응? 그게 뭘소리여?”

“아, 나가 새벽에 농장 나갈 적에 언제 한 번 살갑게 문열어줌서 뒤따라 나서서 창문 열고 쳐다보거나 했남? 글고 눈 한번 마주침서 웃어나 줬나고. 그저 형식적으로 ‘땡겨오쇼이’ 그소리만 했지.”

“히히히. 그래서 시방 당신이 질투하는 거요?”

“질투는 뭘 얼어죽을 질투. 내가 성질이 못 돼서 트집잡는 것이지.”

“알면 됐네. 매듭시 새벽부터 생트집 잡지 말고 내말 잘 들으시오. 내 평생 소원이 뭐라 했수. 하얀 와이샤쓰에 양복 짝 빼입고 출근하는 남편 배웅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귀에 딱지얹게 했는디. 이제야 큰아들이 그 소원 풀어줘서 그놈 장가갈 때까지만이라도 하고 싶었던 걸 해보자 허는디 새삼스럽게 왜 그걸 인자서 트집잡는댐요. 참 이상스럽네이. 인자 당신도 늙어가는가비요.”

‘꿈.’ 할 말이 없다. 펜스레 뒤척이면서 아내한테서 등을 돌리고 멀뚱하게 벽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그런 소원을 풀려면 처음부터 농사꾼한테 시집오지 말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나 공무원한테 시집을 갔어야지. 늘 삽이나 어께에 메고 바짓가랑이에 흙이나 묻혀가지고 다니는 농사꾼한테 시집와서도 아

무 말 앓더니 인제 와서 평생소원을 찾고 난리람.

사실 아내는 나에게 너무도 가까운 사람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저 젊으니까 못 할 것 없다는 뱃장만 두둑한 무일푼의 총각한테 쿵각지가 썩어 시집와서 병든 시부모님 모시면서 어린 시동생들 공부 가르쳐 장가까지 보내고 잠시 쉴 틈도 없이 아이들 셋 낳아 기르고 공부시키느라 자신의 꿈은 생각조차 해보지 못하고 세월을 보냈다. 꿈만 컸지 가진 것 하나 없던 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그 많은 가족들 입에 풀칠이라도 할 형편이었다.

일 추진을 해놓고 자급에 밀려 도중에 실패하는 횡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에 쪼들려 결국엔 42년 동안 내 꿈과 희망을 모조리 심어 놓았던 고향을 등지고 도시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때의 막막함이란... 그래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이 있기까지 내 옆엔 항상 아내가 껏갯하게 항상 자리를 지켜주었고, 우리 세 아이들이 나를 믿어주었다. 다른 가족과 친구들도 관심을 가져주며 “너는 언젠가는 해낼 것”이라는 한 마디 말로 밑바닥까지 떨어진 내 용기에 불씨를 던져주었다.

도시 생활 어느새 10여 년, 양복 차림의 말쑥한 멋진 신사들을 많이 봐온 아내가 어느 날부터인지 함께 외출할 적엔 늘 입고 다니는 점퍼 차림의 내게 한 별뿐인 양복을 입히려 애를 쓴다.

“당신도 와이셔츠에 양복을 입으면 멋있을 것인디, 우리 한번 입어보자. 응?”

“나는 편한 게 제일 좋아. 이 점퍼가 얼마나 편한데.”

“그러지 말고 오늘 한번만 양복 입어보게.”

“썰 데 없는 소리,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여. 결혼식엔 어쩔 수 없이 예의상 입지만 그 벅타이 매면 얼마나 목이 답답한지 아는가? 나는 싫어.”

아내는 지금 내게서 채우지 못한 텅 빈 마음을 큰아들한테서 조금씩 채워가고 있는 것 같다. 그걸 이해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자꾸만 내 가슴을 파고드는 건 왜일까? 진정 내가 못나서일까? ♥



“떡 사세요”

● 글_박황국 | 인천시 동구 송현동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절망감과 우울증으로 하루하루를 폐인처럼 살던 나는 친구의 오랜 설득과 권유로 조그마한 떡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스팀이 올라오는 떡시루에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떡시루를 찌고 나르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떡 만드는 기술이라도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고, 내게는 처음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렇게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기에 그만 알고 지내던 업체 사람에게 솔직하게 내 속사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직접 떡을 받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습니다.

노점상 자리 한 칸 얻을 수 있는 돈도 없었기에 나는 내 튼튼한 몸 하나 믿고 떡 가방을 가지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떡이 나오는 시간에 맞추기 위해 매일 새벽마다 서울로 가는 첫차를 탔고, 시장과 축제 행사장,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면서 떡을 팔다 언제나 막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몸은 힘들고 피곤해도 고생한 만큼 수입이 생기니 좋았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첫차를 탔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 내일 애가 유치원에서 눈썰매장 간다는데 어떡해요.”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지 왜 나한테 묻고 그래. 아침부터 재수 없게.”

“며칠 전에 집주인 아저씨가 방 빼라고 해서 밀린 집세랑 세금을 내고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기름이 떨어졌는지 아무리 쳐 봐도 찬물만 나오고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아요. 어떡해요?”

아내의 이야기를 듣자 물려오던 줄음이 짝 달아나고, 울컥 화가 목까지 치밀어 오르더군요. 자신도 모르게 거친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 건 미리 체크했어야지.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챙겨야 되냐? 나도 모르니까 끊어.”

영하 10도가 넘는 그날, 유일한 생계수단이 돼버린 떡을 팔기 위해 재래시장 구석 빈자리를 찾아 하룻동안 자리 주인이 되어 전날 밤부터 이불 속에 넣어두어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몇 가지의 떡을 풀어 놓았지만 상인들의 모습만 보일 뿐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뜸하기만 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기약 없이 찾아올 손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반아다 파는 떡은 좋지 않은 떡인 줄 알고 묻기만 하고 그냥 가는 손님들을 여러 번 놓친 적이 있어 하얀 종이 위에 ‘품질 보장 원산지 보장’이란 문구를 써놓았지만 노점상이라 그런지 영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빠가 저리도록 시린 추위 때문인지 사람들의 발길은 더욱 뜸해졌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바닥에 있던 떡들도 점점 굳어져만 갔습니다. 다른 날보다 가져간 떡이 좀처럼 팔리지 않았기에 한숨만 나오더군요. ‘얼마나 팔았을까?’ 돈을 세어보니 채 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사야 하는데, 기름을 사야 하는데...” 자꾸만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동안 시간은 무심히 흘러 장은 끝나버렸습니다. 바닥에 있던 떡들을 하나둘 가방에 챙겨 넣고 들어보니 무거운 바위를 메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따뜻한 전철 안, 집에 있는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니 이 따스함마저 미안해졌습니다.

‘이 추위에 얼마나 떨고 있을까? 우리 집도 이렇게 따뜻하면...’

두서너 정거장을 지나갈 때쯤 아내에게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야, 힘내라 힘! 돈 없이는 살아도 자기 없인 못 살아요♡’

웬지 그 한 통의 문자가 너무나 가슴 아프게 느껴지더군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가본 눈썰매장에 간다고 신이 난 아이에게 따스한 장갑과 모자도 못 사주는, 냉방에서 추위에 떨며 밤을 보내야 하는 아내와 아이에게 나는 너무나 못난 아빠이자 남편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과 걱정으로 한숨을 쉬며 있던 중 전철 안에 있던 칸과 칸 사이의 문이 열리며 나와 비슷한 가방을 들고 허름한 옷을 입은 내 또래의 남자가 들어서더군요. 그는 전철 중간쯤 가더니 가방을 풀어 헤치고 서서는 뭔가를 꺼내 큰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파는 물건은 칫솔이었고, 허름한 외모와는 달리 칫솔에 대한 설명이 너무 유창해 누가 보아도 정말 좋은 칫솔인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 역시 한 여자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이겠지? 그리고 그런 가족을 위해 저렇게 사람들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저 사람처럼 남 앞에 서서 저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왜 없을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못난 아빠, 못난 남편 때문에 고생을 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는 나쁜 짓만 빼놓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맹세했던 나였기에 추위에 떨고 있을 가족을 위해 그 사람처럼 용기를 내어 사람들 앞에 서서 가방 가득 쌓여 있는 떡들을 팔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떡하든 떡을 팔아서 아이의 모자와 장갑을 사고 뽕뽕 얼어붙어 있을 추운 방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데우는 기쁨을 사고 싶었습니다.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음 역에서 내려 지갑 속에 들어 있는 가족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아빠이기에 어떤 것에도 창피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에 다짐을 하고 전철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 들어가 용기를 내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떡 사세요. 떡 사세요. 제가 직접 만든 떡입니다. 떡 사세요.”

순간 전철 안은 조용해졌고, 사람들이 시선을 내게 맞추더군요. 그렇게 큰소리로 이야기하고 난 후, 아무 반응도 없는 그 상황에서 막상 나는 어찌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떡을 든 손과 서 있는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려왔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멈춰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웬지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지만 꼭 참고 떡가방을 손에 쥐고 앞만 보고 걸어가며 외쳤습니다.

“떡 사세요. 떡 사세요. 제가 직접 만든 떡입니다.”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희미하게 어디에선가 누군가 내게 손짓을 하며 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연배의 할아버지 한 분이 “떡이 얼마냐?”고 물으셨고, 저는 “하나에 이천 원입니다” 하고는 숨차게 대답을 했습니다. 떡가방을 펼치고 아직 굳지 않은 떡을 골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굳지 않은 떡이 하나도 없더군요. 차마 양심상 그런 떡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떡이 많이 굳었네요. 죄송하지만 팔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래도 괜찮다며 굳어버린 떡 하나를 사가시며 내게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구먼. 살다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열심히 살어! 열심히 사는 게 좋아보여서 산겨.”

할아버지의 말씀이 너무 고마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힘들고 지쳤던 하루는 너무나 가고 싶던 집에 들어가 나를 반겨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시리도록 차가운 방 한 칸에 나와 아내, 내 딸아이 둘까지 그렇게 뱃서 한 이불 속에서 하나가 되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추웠던 만큼 따뜻한 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



여탕 매장에서

● 클_서관순 | 경북 구미시 형곡동

“어서 오이소, 아이고 엄청시리 춥지예.”
“아이고 추버라.”

목욕탕으로 들어서는 손님 안경이 뿌옇습니다. 손님은 시린 손을 비비며 “음, 냄새 좋다 커니. 냄새 짙이네. 이모” 합니다.

“이모야, 내가 오늘 특별 서비스로 확 까무러칠 만한 원두 내렸다. 자 이거 한 잔 하고 몸 좀 녹이고 들어가라.”

종이컵에다 갈색 커피를 한 잔 쪽 따라서 드리고 잠시 동안의 살가운 수다가 오고갑니다.

“이모, 우리 석류 두 잔 맛있게 타주고요, 그리고 비누도 한 개 주세요.”

옷장 키를 건네고 석류주스 믹스를 합니다. 석류 원액에다 생수를 조금 넣고 각얼음을 듬뿍 넣어서 만든 클레오파트라보다 더 때깔 좋은 주스를 들고 슬라이퍼를 신고 욕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뿌연 김이 서려 누가 누군지 허연 동안 보이니 잘 알아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한 8개월 정도 일하다보니 별거벗은 뒤대만 봐도 어느 손님인지 90프로 정도는 맞춥니다.

여기는 우리 동네 조그마한 여탕입니다. 여탕에서 매점 일을 보고 있지요. 이 일을 하게 된 지 벌써 8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추운 겨울 새벽에 쫘쫘 싸매고 한 30분 정도 걸어야 도착하는 어두운 길이 무섭기도 했지만 새벽 일찍 신문을 돌리고 우유를 돌리는 아줌마들의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

면서 ‘이 추위쯤은 이겨야지. 우리 가정에 새로운 봄날을 위해서 참아야지’ 하고 마음먹으면서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한 일주일 다니니까 아이 낳은 산모처럼 온몸이 퉁퉁 붓고 발바닥이 너무 아파 ‘이 짓을 해야 하나? 당장 때려치울까’ 하는 갈등도 있었지만 우리 집안의 좋은 날을 생각하면서 진통제까지 먹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탈의실 청소와 매점 관리입니다. 탈의실에 먼지랑 기다란 머리카락들을 제 키만한 밀대로 닦아내고, 손님들이 이리저리 던져놓은 물젖은 수건도 바구니에 챙겨두고 거울도 닦습니다. 이 일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다. 까다로운 손님들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도 많았지요. 새파랗게 젊은 아가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거스름돈을 톱이라며 던질 때는 정말로 슬펐지만 꼭 참았습니다.

각종 음료를 적당히 배합해서 팔기도 하고, 새벽에 장만해온 각종 야채랑 계란을 가지런히 놓고 김밥도 썩니다. 또 계란을 사우나실에 넣어서 구워내기도 합니다. 얼음을 만드는 제빙기가 없어 일반 냉동실에 얼음을 올려 쓰러니 무척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우나실에서 여자 손님들은 얼음 리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고가 많지 않을 때는 주문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누가 누군지 몰라 가끔씩 돈을 잘못 받은 적도 있는데, 이제는 피가 생겨 처음 들어오는 손님은 특징을 알아둡니다. 생머리·파마머리·하얀 얼굴·등에 난 점 등 나만이 알 수 있는 표시로 기억해둡니다.

우리 목욕탕은 동네목욕탕인지라 물건 값이 선불이 아닙니다. 거의 다 후불로 계산을 하니 신경 써서 챙기지 않으면 혼동이 됩니다. 지금은 사우나팀들이 즐기는 커피 종류도 다 알고, 제가 커피 이름도 특별하게 지었습니다.

‘진달래’는 진하고 달게 타는 커피고, ‘살구꽃’은 살색이 날 정도로 연하게 타는 커피입니다. ‘개나리’는 보통 단맛이 나는 커피고, ‘감상’은 블랙커피입니다.

“이모야, 진달래 두 개, 감상 하나.”



“알았어. 쪼매만 기다려.”

사우나에서 땀을 죽죽 흘리는 손님들 사이로 왔다갔다하다 다리가 아프면 따뜻한 데다 조금 지지기도 합니다.

점심때가 되면 작은 전기밥통에 밥을 하고는 가져온 반찬들을 내놓고 작은 식탁에서 때밀이 이모들이랑 식사를 합니다. 반찬은 대부분 손님들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밥만 지으면 남부럽지 않은 밥상이 됩니다.

목욕탕에는 왕이모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 목욕탕에 근무하기도 했지만 마음 씀씀이가 커서 우리는 왕이모라고 부릅니다. 이모는 IMF 때 아저씨의 부도로 재산을 훌쩍 날리고 죽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다 결국 미수에 그치고, 그 정신으로 다시 살아보자고 굳게 마음먹고 강원도에서 아무도 아는 이 없는 이곳에 와서 서투른 때밀이를 시작했습니다.

골프채를 휘두르던 손에 때밀이 수건을 들고 하루 종일 물과 더위와 씨름을 하려니 습진이 생기고 손과 발이 짓물러서 많이 울기도 했지만 이를 악물고 이겨냈다는 왕이모는 가끔씩 마시는 술자리에서 곧잘 물어댑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모는 그때뿐, 아침이 시작되면 얼마나 열심히인지 모릅니다. 넓은 탈의실

청소며 계단 청소, 탕 안까지 깡마른 날씬한 몸으로 날아다닐 듯 다니면서 단번에 해치웁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면 정말로 정성들여 손님 몸 구석구석 때를 밀어내고 얼굴 마사지는 덤으로 서비스 해줍니다. 한탕(한 손님 때밀기)을 하고 나오면 잠시 쉬다가 심심해지면 쇼를 합니다. 아주 아한 속옷을 골라 머리에 뒤집어쓰고 탈의실을 한 바퀴 돌면서 대야를 두드리며 <각설이타령>을 합니다.

옷을 입던 손님이며 머리를 말리던 손님 모두 배꼽을 잡습니다. 얼마나 우습게 엉덩이를 흔들고 타령도 멋들어지게 하시는지. 한 바퀴 돌고 짐을 짊어지면 이제는 미스코리아처럼 우아한 몸짓으로 손을 흔들며 우스갯소리를 해서 모두들 흐느껴웃게 만듭니다.

입담도 어찌면 그리 좋은지 그러다가도 때 밀 손님 시간이 되면 오이랑 우유를 냉장고에 꺼내들고 재빨리 탕 안으로 사라집니다. 하루 종일 이 사람 저 사람 때를 민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노동이겠습니까마는 그 더운 열기 속에서 땀으로 샤워를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왕이모를 난 존경하고 싶습니다.

이모에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거라곤 시원한 얼음물이나 냉커피 한 잔 드리는 것밖에 없지만 참으로 속 깊고 마음 따스한 왕이모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사는 나라가 하루 빨리 왔으면 합니다. 사우나 단골손님들이 많이 고맙습니다. 속옷 하나라도 더 팔아주려 애쓰는 손님들이 있기에 그래도 살 맛 나는 우리 동네 목욕탕입니다.

“누구 아들이 그 좋은 대학에 입학했대요.”

“그 집 아저씨가 직장을 그만 두게 됐대요.”

손님들의 수다 속에서 오늘 하루도 저물어 갑니다. 내일은 한 달에 두 번 쉬는 날인데 무엇을 하면서 멋있게 보낼지 고민 중입니다. ♥



아내의 마지막 길

● 글_애청자

지금 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밤에는 눈발이 날렸는데, 모두가 잠든 새벽이 되자 비가 되어 내리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아내를 생각합니다. 아내는 지금 자궁경부암 말기 환자입니다. 혼자 외롭게 투병을 하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겨울비가 내리니 아내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아내는 2007년 10월에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암 4기 진단을 받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의사의 소견대로라면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남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난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죄를 짓고 영등포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 생활을 하고 있지요. 지난해 7월 구속돼 지금까지 이곳에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4월까지 아내를 살려보겠다고 생각도 없이 범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내의 병을 치료하려고 범죄까지 저질렀지만 아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내의 나이 불과 서른넷입니다.

2003년 친구의 소개로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저는 아내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전 아내 곁에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저는 아내를 고생만 시켰습니다. 그렇게 고생만 하면서도 아내는 말

이 없었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아내는 묵묵히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오진이 아닐까 하여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암 진단을 받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병이 얼마나 위중한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을 하려고 구치소에 아내와의 특별 면회를 신청해 아내와 면회를 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아내의 얼굴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7년 10월 9일에 이곳 구치소에서 아내 담당의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아내의 병이 매우 위중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고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서울 남부지방법원 법률구조공단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사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에 제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며칠 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구치소에 찾아와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형집행정지 신청과 보석 신청이 있는데 저는 미결수여서 형집행정지 신청은 안 된다고 해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제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보석이 되어 아내에게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곳 구치소에서 아내에게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양띠이고 올해 43세의 남자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시간을 아내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

후기 사연의 주인공이 다시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아내는 1월 9일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끝내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지 못했지만 빈소는 지킬 수 있었답니다.



어머니의 울레

● 글_김동수 | 충남 서산시 동문동

어머니의 치매가 더욱 심해진 건 2007년 3월 29일, 아버지가 여느녘에 방광암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뒤부터였다. 남편과의 마지막 작별을 위해 셋째 사위의 등에 업혀 광중 근처로 옮길 때만 해도 어머니는 더운 눈물을 흘려 남편의 죽음을 애도할 정도로 정신이 맑았다.

탈관한 아버지의 염신 위에 저승길에 조금이라도 편히 가시라고 노잣돈을 놓아드리고 상토를 하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효자보다 악처가 낫다’는 옛말이 있듯 살아생전 부부애는 그다지 시릴 정도로 애절하지는 않았지만 4년 전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끝까지 보살피며 안타까워했던 사람은 금이야 옥이야 하며 애지중지 길렀던 자식들이 아니라 늙고 병든 남편이었다.

황대를 덮은 하얀 한지 위에 붉은 흙이 찌르르 찌르르 소리를 내며 쏟아지고 광중에 이승과의 연을 끊는 흙이 한 삽씩 채워질 때마다 어머니의 영혼도 시나브로 아버지와 함께 무덤 속에 정박해버린 모양이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대변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찮은 짐이 되어버렸다. 삼우제를 끝내고 여섯 남매가 한자리에 모였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자 형제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2남4녀의 장성한 자식들이 있었건만 누구도 치매에 걸린 팔순 노모를 선뜻 모시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부모님이 건강하고 재산이 남아 있을 적에는 서로가 모시겠다고 그렇게 성화를 부리더니...

서운함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치매환자를 모신다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일상과 가족들의 희생을 담보해야만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의 불효를 나무랄 수는 없었다. 그게 염량세대의 엄연한 현실이고 그런 게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의 괴로운 삶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어머니는 형제들 각자의 피치 못할 구구한 사정과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할 때 막내아들인 나를 가장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게 떠밀리다시피 맡겨졌다. 아내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하루도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안식할 장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날로 어머니를 아버지의 산소에서 바로 우리 집으로 모셔야 했다.

예상대로 아내의 충격은 컸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장남도 아닌데다 자식이 다섯이나 되는데 하필이면 왜 우리나라는 거였다. 피가 섞인 자식들도 다 외면하는 어머니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가 어찌서 모셔야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했다. 나로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다. 그저 아내의 분노가 진정되길 기다리는 수밖에...

그날 이후부터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묻히는 걸 보고 정신적 충격이 컸던지 행동이 더욱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기저귀와 이불에 있는 솜과 옷의 실밥을 전부 뜯어내는가 하면 당신이 본 변을 손으로 비벼 주변에 발라놓기도 했다. 심지어 자신의 팔등을 물어뜯어 옷과 이불을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어느 날은 내가 퇴근해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밥을 달라고 보채셨다.

“엄마, 아직 저녁 안 드셨어요?”

내 물음이 끝나기가 바쁘게 어머니는 말했다.

“아뉴, 아무것도 못 먹었슈. 글썽 저녁이 밥을 안 줘유.”

물론 그 말이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어머니의 너무나 천연스런 말씀에



순간 아내를 의심하게 되어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진다.

“당신, 어머니께 저녁 안 드렸어?”

“아까 소고기죽 한 그릇이나 드셨어요.”

아내는 억울하다는 듯 항변한다.

“엄마, 얼굴은 왜 그래?”

어머니의 왼쪽 눈두덩이 먹칠을 한 듯 시퍼렇게 멍이 든 것을 보고 내가 묻자 어머니가 답했다.

“궁께, 저년이 자꾸 날 때려유. 무서워서 못 살것슈.”

아내의 말로는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오시다 굴러 떨어져 멍이 들었다고 했

다. 처음에는 정말 나 없는 사이에 아내가 어머니에게 몰래 손찌검을 할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했다.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으면 육체적 피곤보다 실은 이처럼 가족 간 믿음의 균열을 불러오는 게 더 무서웠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욕설과 집안에서 나는 악취는 차라리 편한 고통이었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듯 위태로움의 연속이었다. 엄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중3인 딸아이의 성적은 곤두박질치고 나와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다.

이런 모든 것이 온전히 아내의 짐이 되었다. 더불어 아내의 스트레스도 점차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었다. 이런 아내를 돕기 위해 내가 아내를 대신해 어머니의 기저귀라도 갈려고 하면 어머니는 혼몽 중에도 한사코 내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강제로 바지를 배꼽 아래까지 벗기면 어머니께서는 더욱 결사적으로 내 손아귀를 벗어나려 하셨다. 어머니의 눈빛은 ‘아무리 늙어도 여자는 여잔데 어떻게 장성한 아들에게 당신은 곳은 데를 보이겠느냐’는 그런 애원의 눈빛이었다. 기억력과 판단력을 비롯해 모든 시공간 파악능력이 죽어있으면 서도 오직 치부에 대한 부끄러운 기억만은 아직도 본능적으로 살아 있었다.

내 추억 속의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다. 총기가 좋아 온 동네의 경조사며 품앗이 일수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줄줄이 꿰고 다니셨다. 그뿐이라, 어머니께서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자식들에게 밀어놓고 당신은 드시는 법이 없었다. 또한 잘 배풀고, 깔끔하기로 동네에서 소문난 분이셨다. 농사짓는 분주한 생활에서도 방이나 마룻바닥에 머리카락 한 올도 떨어져 있는 것을 허용치 않을 정도로 청결하고 경구가 밝았다.

이런 어머니의 성격 때문에 매사 털털했던 아버지와 자주 충돌을 빚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이제 자신의 대소변도 혼자서 처리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신 것이다. 손끝 하나 자신의 의지대로 정확하게 놀리시지 못하는 어머니는 산 채로 말라가는 미라였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9월 초부터 나에게도 비문증이 나타나 활동작전으로

나를 괴롭혔다. 눈앞에서 날파리떼 같은 것이 날아다니며 자꾸만 시야를 가렸다. 밝은 곳에선 더 잘 보이고 백지에 인쇄된 책을 볼 때는 더욱더 선명해졌다. 눈을 깜박여도, 눈을 비벼도, 머리를 흔들어도, 눈을 감아도 반점은 없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눈알을 송곳으로 찌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고민 끝에 시내 안과를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원인은 노화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문증도 차매처럼 일단 걸리면 그 어떤 근원적인 치료법도 없다고 했다. 그저 떠다니는 반점에 집착하지 말고 적응이 될 때까지 잊고 지내는 게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했다.

늙고 병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어머니가 저렇게 된 건 그 누구의 허물도 잘못도 아니었다. 세월이 가면 누구나 늙고 누구나 병이 든다. 죽는 일도 사는 일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사람 사는 이치다.

‘한 손에 가시 들고 또 한 손에 막대 들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렀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라는 〈탄노가〉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늘 자신만은 저런 질곡의 대열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다고 안심한다. 아니 일부러 외면함으로써 자신만은 생로병사의 윤회에서 예외이고 싶어하는 회피심리인지도 모른다.

엿그제는 끝내 어머니를 차매전문 요양원에 모셔다 드렸다. 요양비가 다소 부담이 되고 어머니께 불효를 저지른다는 죄책감이 납덩이를 삼킨 것처럼 가슴을 짓눌렀지만 현재로서는 그 길만이 내가 살고, 어머니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사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어머니를 집에서 모신 지 꼭 6개월 만에 내린 고심어린 결정이었다.

시설은 전망 좋은 야트막한 산 속에 있었다. 바람이 요양원 자락을 스치며 일렁였다. 바람이 일 때마다 길쭉의 풀잎들이 여러게 흔들렸다. 일행이 차에서 내리자 가을꽃이 만발한 요양원 창문으로 하얀 노인들이 코를 박고 몰려들

었다.

자동차 뒷자리에서 눈을 감은 채 정물처럼 앉아 계신 어머니를 안았다. 겨울 가랑잎처럼 가벼운 몸에 종아리뼈가 툭툭 볼거진 어머니의 모습은 흡사 생물실의 골격표본처럼 쇠락해 있었다.

“동수야,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일부러 굶어서라도 살을 빼야 한단다. 그래야 상여를 매는 사람들이 고생을 덜하지.”

어렸을 적 당신께서 들려주시던 그 말씀대로 어머니는 지금 사랑하는 막내 아들과의 영결을 위해 마지막 정을 떼고 있는 걸까. 갑자기 통증이 느껴졌다. 몸의 사지들 중 어느 한 부분이 떨어져나가는 듯한 그 상흔에서 끊임없이 통증이 배어나오는 환지통. 나는 어머니의 마른 몸과 내 몸을 접붙시킨 채 온몸으로 끌어내렸다.

입소계약서를 작성하고 요양비를 입금할 계좌번호와 장기요양등급번호를 적는 것으로 어머니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는 모두 끝이 났다.

“엄마, 여기가 집보다 나은 거야. 시설도 좋고 또 친구도 많고...”

거죽만 남아있는 어머니의 메마른 볼에 내 볼을 부비며 나는 엎드려 울었다.

요양원에서 나오는 길,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 뒤로 해가 졌다. 바람이 일고 노을이 졌다. 그때 크리피스 도넛 같은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배경으로 한 여자가 ‘사랑하는 내 자석아, 사랑하는 내 자석아’를 연호하며 ‘올레’를 추는 환상이 보였다. 나에게 살과 뼈를 제공한 어머니가 그곳에서 영혼의 몸짓인 올레를 추고 있었다. 자신의 몸에 마지막 영혼을 담아 추는 춤이라 춤이 끝나면 그녀는 곧 탈진할 것이다. 나 또한 이승에서의 마지막 춤이 될지도 모르는 그녀의 춤에 초라한 관객이 되어 함께 움직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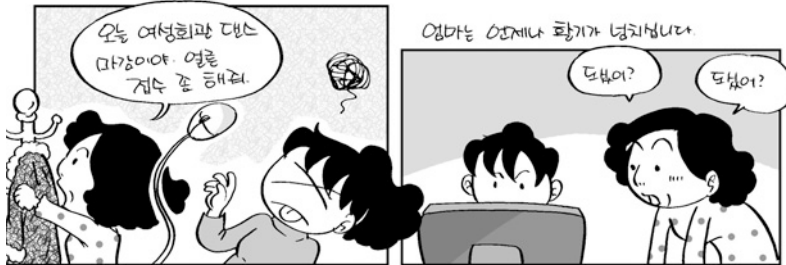
그러나 움직이는 것은 나도 그녀도 아니었다. 움직이는 것은 오직 인간을 놓고 병들게 만드는 그 원흉 같은 세월이라는 관객뿐이었다.

‘아!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지 마세요!’ ♥

“딸아! 너도 왕언니라고 부르렴”

◎그림_심경희

※ 이 만화는 최문정 씨(경기도 의왕시 삼동)가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은 별명이 있으신가요? 서울 창동에 사는 예술이 엄마 별명은 '개공' 이래요.

'번개탄에 콩 볶는다는 뜻' 인데, 무엇이든 똑딱 해치우는 예술이 엄마를 동네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네요.



우리 엄마는요, 특별한 엄마예요

서울 창동 | 예술이네 집



이제 중학교에 갈 예술이가 여성시대 앞으로 '우리 엄마는요!' 하고 엄마 이야기를 편지로 보냈습니다. 연두색 편지에 진한 심의 연필로 또박또박 써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얼마나 잘 썼는지 여성시대 제작진도 감탄하고, 방송 들으신 분들도 칭찬하셨습니다. 예술이네 집에 가보니 글짓기 상장이 많기도 합니다. 편지를 잘 쓴 게 이유가 있었습니니다.

예술이가 엄마별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덜대면 엄마는 그러신대요. "우리 딸이 엄마별명이 맘에 안 든다고 짜증내는 걸 보니, 엄청 많이 컸네!" 예술이 엄마는 서른여덟 살 알뜰 주부입니다. 화장품도 샘플을 모아줍니다. 화장품 가게에 가면 "제 피부가 민감성인데, 저한테 맞는 샘플이 있을까요? 샘플을 좀 써봐야 할 것 같아서요, 호호호" 하고는 샘플을 얻어오신대요. 여성시대가 예술이네 집에 가 보니까, 정말 샘플이 바구니 하나 가득입니다. 예술이는 이런 엄마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술이 엄마는 백화점에도 가지 않는대요.

"예술아, 백화점은 정찰제다. 깎지도 못해. 얼마나 비싼지 아빠 월급으로도 못 사. 세일을 해도 그 값이 그 값이야" 하고는 할인마트에 가서도 1+1 제품이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답니다. 예술이 편지의 한 구절을 볼까요?

엄마는 1+1 제품을 골라놓고도, 마트 구석구석 한 바퀴 휘 돌다가 시식 하면서 카트에 넣어놓으시고는 어김없이 저를 시켜 갖다놓게 합니다. "엄마가 갖다 봐, 나 쪽팔려." "에이, 그러지 말고 네가 갖다 봐. 그래도 네가



갓다 놓는 게 낫지, 엄마가 갓다놔야 쓰겠냐?” 정말 대책이 안 서는 우리 엄마. 그리고 저는 우리 엄마가 제발 잠옷과 집에서 입는 옷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입은 옷 그대로 잠잘 때도 입는 걸 보면, 아빠가 대단하시다고 느껴져요. 그래도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대요. 알뜰하게 이것저것 아끼시는데, 저는 엄마 몸에 투자하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해요.

1월 14일에 예솔이 편지가 방송되던 날, 예솔이 엄마는 그날도 여성시대를 크게 틀어놓고 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투에 붙일 긴 지퍼를 손질하는 일인데, 딸의 편지가 나와 얼마나 놀랐는지, 게다가 그 내용을 듣고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대요. 결국 방송을 듣다가 예솔이 엄마는 여성시대 앞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이제 화장품 사서 쓰겠다고.

예솔이 말이 구구절절 맞지만, 열네 살 소녀인 예솔이 마음도 충분히 알지만 “예솔이 엄마 사는 게 우리 사는 거랑 똑같네” 하시는 여성시대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니와 문자게시판에 그런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전남숙 씨는 “예구, 딱 제 애기네요. 저도 화장품 샘플 많이 받아오거든요. 예솔아, 그게 바로 엄마의 자리란다. 너도 커서 네 가족이 생기면 그땐 엄마를 이해할 거야” 하셨고, 이순분 씨는 “중학교 갈 딸이 저런 걸 걱정하다니... 우리 딸은 저 나이에 철없이 노느라 바쁘기만 했

는데... 딸 하나더 낳아서 예솔이처럼 저리 키우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예솔이 엄마가 자주 하는 이야기도 우리와 똑같아서 예솔이와 예원이 자매가 밥이라도 남기면 “북한 애들은 굶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배가 불렀구나!” 합니다. 예솔이는 “엄마, 저 이제 중학교 들어가요. 엄마가 다른 엄마보다 더 예쁘고 세련되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적었지만 세련된 엄마를 갖고 싶던 우리도 살아파서 알듯이 글썄요, 앞으로 예솔이 엄마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톡톡 사고, 하늘하늘한 잠옷을 입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예솔이 엄마는 날씬한 몸을 유지하느라 부엌하는 틈틈이 운동도 하고, 예원과 예솔이 음악공부하는 것도 지켜보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솔이네 집 거실에는 책이 하나 가득, 그 옆에서 예솔이 엄마는 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솔이 편지와는 달리 예솔이 엄마는 이미 누구보다 세련되고 멋쟁이고 예뻐했어요. 엄마가 더 세련되길 바라다니! 예솔이가 욕심쟁이인가 봅니다. 날씬한 몸을 유지하느라 부업하는 틈틈이 운동도 하고, 예원이와 예솔이 음악공부하는 것도 지켜보고, 열심히 사는 게 한눈에 느껴졌습니다. 부드러운 모습에 자상함이 몸에 밴 예솔이 아빠도 만났는데, 두 분 사이가 좋은 게 그냥 느껴졌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솔이 아빠는 좀 넉넉하게 사업을 했는데,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못한 주거환경에 가족을 살게 하는 걸 매우 미안해 하셨어요.

“처음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죽어버릴까, 어디 먼 데로 배를 타러 갈까, 별 생각을 다 했죠.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 때문에 더 억울하고, 화가 나서 1년 정도 방황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힘드니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아이들도 더 잘 돌보고, 더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고,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6남매의 맏이라 그런지 어려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의젓합니다.”

예솔이는 엄마·아빠의 사랑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하고 아빠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났대요. 엄마네 회사 회식과 아빠네 회사 회식이 같은 나이트클럽에서 있었대요. 그런데 첫눈에 반해 7월에 만나 12월에 결혼하셨대요.”

예솔이와 예원이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지도하는 엄마처럼 둘 다 음악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비롯해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는 걸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해요. 두 딸과 같이 책을 읽고, 두 딸과 같이 책꽂이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아빠와 알뜰살뜰한 엄마 그리고 똑똑한 두 딸. 저리 똑똑하고 활발한 예솔이와 예원이가 있어서 엄마·아빠 얼굴이 저리 환한가 봅니다.

내일로 행복할 테이지만 오늘도 예솔이네 집은 충분히 행복하고 환합니다. 이 환한 행복이 봄기운을 타고 전국의 여성시대 가족에게 퍼져나갈 겁니다. 봄이, 행복이, 꿈이, 더 나은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



ROBOTICS

Advanced Technology

미래 신 성장 동력산업을 이끄는 프린티어 기업

기업은행 분당야탑역지점 고객
(주)로보터스 문흥연 대표이사



“올해부터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을
상품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3~5년 내
에 실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저렴한 로봇을
출시할 계획이에요.”



(주)로보터스 문흥연 대표이사

로봇이라는 단어는 아직까지 우리네 일상생활과는 밀접하지 않은 것 같다. 로봇과 함께하는 삶은 여전히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고 공상과학영화나 나올 법한 얘기로 치부되기 일쑤다. 하지만 로봇분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향후 5년 내에 실생활에 필요한 로봇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로보터스의 문흥연 대표는 자신 있게 말한다.

(주)로보터스의 사업분야는 크게 산업용 컴퓨터부품, 로봇, 환경사업으로 구분된다. 산업용컴퓨터부품분야의 주력 생산제품은 '모터 액추에이터(Motor Actuator)'라는 부품이다. 슈퍼컴퓨터의 데이터 백업수단으로 사용되는 테이프 드라이브의 헤드를 제어하는 핵심부품으로, 대용량의 정보를 기록하거나 읽는 기능을 수행한다.

문 대표가 로봇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부터다. 덕분에 (주)로보터스는 10여 년 간 지능로봇에 대해 수많은 기술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다. 로봇기술은 향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까지 상품화해서 판매되는 제품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기술집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완벽한 제품이 출시되지 않고, 그래서 로봇산업의 성장이 더딘 것이라고 문 대표는 설명한다.

“단순히 기술력을 자랑하기 위한 제품이 아닌 현실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올해부터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을 상품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3~5년 내에 실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저렴한 로봇을 출시할 계획이에요.”



침입자를 제압할 수 있는 경비보안로봇, 제철소 내 반응로의 청소작업과 같이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사람 대신 일할 수 있는 로봇 그리고 현재 국방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견마형 로봇의 원격

제어장치 등 다양한 로봇응용기술을 토대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상용화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환경사업분야에서는 (주)로보터스의 특허기술인 마이크로버블 제너레이터(Microbubble Generator; 미세기포발생장치)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공기 중의 기체를 물 속에 효과적으로 녹여 액화시키는 기술'과 '물 입자를 보다 작게 쪼개는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가정용 샤워기 '프렐 버블메이트(FRELLE Bubblemate)'가 오는 3월말 경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전망이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유체공학의 원리에 의해 물을 마이크로버블화하기 때문에 무동력·무소음·무진동의 장점과 함께 기존 제품에 비해 우수한 성능과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이 예상된다.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제품에 일반 물을 통과시키면 물 입자가 작아져 빛의 산

란효과로 물이 뿌연 우윳빛으로 바뀝니다. 모공보다 작은 크기의 물 입자가 모공 속에 침투해 찌꺼기와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수분을 잔존시켜 주기 때문에 피부세정효과가 뛰어나죠. 외부 의뢰 실험 결과 대장균·녹농균의 99.9% 살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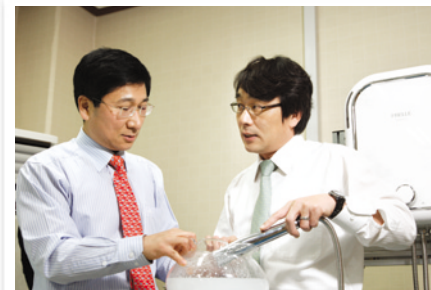
처리효과를 비롯하여 아토피 환자의 피부개선효과, 여드름 피부개선효과, 지루성 피부염(비듬)완화효과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응용하여 업소용 스파와 욕탕에 적용한 것이 '마하(MAHA)' 스파다. 마찬가지로 고농도의 산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다 마이크로버블에 의해 발생하는 음이온과 초음파로 피부미용 및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다.

사실 마이크로버블의 응용분야는 무궁무진하다. 그 중에서도 하수슬러지 감량화 장치는 획기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까만 미생물덩어리가 벽에 붙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물 속의 부유물이 침전하여 생긴 산업폐기물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이 슬러지를 해양투기하거나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해왔다. 하지만 이는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미국·일본·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보터스는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마이크로버블 기술을 적용해 슬러지를 감량화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올 상반기 중으로 환경부 신기술 인증을 획득할 예정이다.

(주)로보터스의 핵심역량은 이렇듯 기술력이라는 한 단어로 귀결된다. 문흥연 대표는 벤처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러한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지난 2004년 선택과 집중을 위해 (주)로보터스를 설립, 자신의 열정을 한 곳에 모았다.

"(주)로보터스는 전기·전자·기계·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메카트로



기업은행 분당아파트역지점 김기우 지행장(왼쪽)은 문흥연 대표가 민주주의형 리더십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닉스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인간이 편하고, 인간과 잘 조화되고, 인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어 이 분야의 강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로보터스는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지만 향후 3~5년 내에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기업은행 분당아탑역지점의 김기우 지행장 역시 “문 대표께서는 매우 젠틀하시고 직원들을 위한 동아리 활동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 전형적인 민주주의형 리더십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며, “회사가 활기차고 직원 상호 간에 화합이 잘 되어 분위기가 좋은데다 재무 상태와 업종 전망 등이 무척 유망한 회사”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문흥연 대표는 작지만 알찬 회사, 단기간의 급격한 성장보다는 오랫동안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 탁월한 기술력과 아이디어 상품으로 대기업들이 부러워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를 위해 그는 회사를 직원들의 놀이터로 만들려고 애쓴다. 회사는 직원들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며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그가 꿈꾸는 (주)로보터스의 내일이자 미래상이 아닐까. ♥

● 글_오인숙(자유기고가) | 사진_주병수

그의 성공에는 이유가 있다

문흥연 대표의 성공 노하우

- ✦ **꼭 필요한 연구개발에만 집중한다** : 연구개발에서 끝나지 않고 상품화할 수 있는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직원들이 사용했을 때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와 꾸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 ✦ **눈 뜨면 출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든다** : 가정처럼 편안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제대로 된 조직력이 갖추어진다.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일에 대한 집중력과 관심, 조직 간의 융화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 **의욕과 열의가 성공을 가른다** : 무엇보다 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의가 충만해야 한다. 노력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법. 한 가지에 집중적으로 정열을 쏟아 부어야 한다.



IBK 하이패스카드는 충전 없이 패스! 잔액 걱정 패스!

은행권 최초, 잔액이 없어도 통과된다
톨게이트를 지나기만 해도 충전된다
IBK기업은행 **hi-pass**카드 자동충전서비스

IBK 하이패스카드는 잔액이 부족하면 톨게이트 통과시 자동 충전되고
다음날 IBK기업은행 계좌에서 충전 금액만큼 출금 됩니다.
이제, 잔액 걱정 없는 IBK 하이패스카드로 마음껏 달리십시오.

IBK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자동충전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모든 고객님께
3월 24일까지 하이패스카드를 무료발급해 드립니다. (5천원 구입비용 면제)

IBK 기업은행

청년취업 1만명 프로젝트 - 무료 취업포털
기업은행 JOB WORLD
<http://www.ibkjob.co.kr>
검색창에 기업은행 잡월드 를 쳐 보세요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보장시스템

공인중개사 전문 교육기업 에듀윌

공인중개사 전문 교육 기업 에듀윌 (www.eduwill.net 대표 양형남)은 국내 최초로 학습자 수준과 환경에 맞는 단계별 맞춤 학습지원 서비스인 '합격보장시스템'을 오픈해 30~40대 여성 수험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에듀윌교육연구소와 분야별 전문 교수진의 감수, 철저한 사전조사 과정을 통해 개발된 '합격보장시스템'은 단계별 목표설정과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 학습의 단점을 보완해 지속적인 학습을 돕고 초기에 올바른 공부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30~40대 여성 수험생들이 겪는 학습초반에 공부방법 등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인



전화 상담으로 집중 관리해 주는 '초반학습 집중케어시스템'이 특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시험일을 역산한 학습계획표를 제공, 다년간의 교육 노하우와 전문 교수진

이 직접 설계한 학습단계와 학습방법을 시기별로 제시하는 과학적인 계획수립은 학습효과를 더욱 높여준다.

또한 집에서는 인터넷 강의, 출·퇴근 시에는 PMP 강의와 MP3 음성강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꾸준히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365일 Q&A 답변, 교수진의 실시간 1대1 학습질문 답변 서비스, 주간학습포인트 등으로 누구나 쉽고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 기업은행 대림동지점 거래기업
- 문의 에듀윌홈페이지(www.eduwill.net), 상담 전화 1600-6700

기업은행에서 추천하는 우량 중소기업を紹介하는 코너로, 위촉된 중소기업의 경기 활성화에 다소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시대
꾸러미

임신에서 출산,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를 기르는 이야기 <출산에서 교실까지>, 남성들의 땀과 안내 그리고 우정을 이야기하는 <장용의 단결! 필승! 충성>, 잊을 수 없는 그 시절, 잊을 수 없는 사랑이야기 <사랑의 계절>을 함께 만나보세요. 매주 월요일 <출산에서 교실까지>, 목요일 <장용의 단결! 필승! 충성>, 토요일 <사랑의 계절>이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꾸러미 하나
출산에서 교실까지
자기가 왜 거기 누워있어?
조선헌 님

●꾸러미 둘
장용의 단결충
야동 블루스
애청자 님

●꾸러미 셋
사랑의 계절
첫사랑의 추억
김미애 님



●내지 일러스트 박지현

자기가 왜 거기 누워 있어?



● 글_조선헌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부 산에서 큰아이를 출산할 때의 일입니다. 예정일이 9일 지났을 때, 아랫배가 무지근해지면서 ‘음’ 하고 힘이 들어가더군요. 서둘러 출산준비 물을 챙기고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상태일 뿐 딱히 배가 아픈 것도 아니어서 집주인이 주머니에 물어봤습니다.

“아줌마, 얼마만큼 배가 아파야 애가 나와요?”

“와? 아가 나올라카나? 배 많이 아프나?”

“아니요, 배는 안 아프고 그냥 아래로 힘이 들어가는 게 기분이 이상해요.”

“치아라. 그라도 아직 멀었다. 저기 전구가 두 개로 보여야 하는 거라. 근데 너는 아직 하나잖아? 그라도 아직 멀었다. 저녁도 먹고, 천천히 병원에 가라.”

저녁을 먹고 설거지까지 한 뒤 남편에게 병원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텔레비전만 보았습니다. 화가 난 나는 “저거 출산준비물이니깐 나 안 오면 싸가지고 병원으로 와” 하고는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래도 곳곳하게 병원에 도착해 진찰을 받고 입원수속을 마쳤습니다.

남편은 밤 11시 반쯤이 돼서야 나타났습니다. 3시간 동안 혼자 진통 때문에 고통스럽게 보내는 동안 혼자 신나게 텔레비전을 보다가 왔을 남편을 생각하니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나가! 저리 안가? 빨리 나가. 지금이 몇 신데 이제 와?”



그러자 남편은 바로 나가버렸고, 진통 간격이 빨라질수록 허리가 아파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이만 양 물고서 끙끙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산모님! 이제 분만실로 가세요” 하더군요. 진찰을 하던 의사 선생님이 난파라는 듯 말했습니다.

“어허 아기가 턱부터 나오네. 머리가 먼저 나와야 하는데, 큰일났네. 간호사! 이분 보호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 죽겠다고 난런데 자기는 한가롭게 술을 마시다니? 두고 보자. 애 낳고 몸 추스르면 너랑 끝이다” 하는 생각으로 의사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그냥 기계로 어떻게 해주세요. 저 순산할 줄 알고 수술비도 준비 못 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시키며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

기를 30여 분쯤 정신이 몽롱해질 무렵 “아악! 으으으” 하며 힘을 주었고, 그렇게 우리 딸이 태어났습니다. 목욕을 시키는데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앙양대고 우는 모습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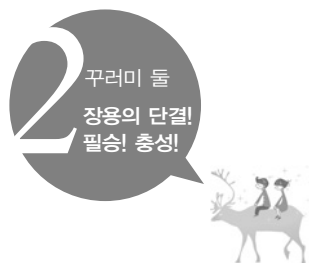
잠시 후, 간호사가 “보호자분! 산모 안고 가세요” 하고 몇 번이나 소리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간호사가 나를 번쩍 안아 입원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술이 잔뜩 취한 남편이 내 침대를 장악한 채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애는 내가 낳았는데 왜 자기가 여기 누워있어?’ 하는 생각에 화가 났지만 화를 낼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는 나를 침대 끝부분에 내려놓고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하고는 나갔습니다. 아기를 낳느라 너무 힘이 들어 잠을 자려고 했지만 벽을 향해 누워있는 남편의 엉덩이가 자꾸만 내 몸을 침대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엉덩이와 싸우느라 저는 밤새 아기를 낳을 때보다 더 힘을 써야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남편은 원래 큰 눈이 더 커져 얼굴에 반을 눈으로 채우며 “어? 애 낳았어? 언제? 아들이야?” 하며 놀라더군요. 저는 “아들? 아들 좋아하네. 당신 같은 애 또 낳을까봐 겁난다”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철부지 남편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아기를 뺨히 들여다보며 “뭐가 요만해. 원래 요만해?” 하면서 조심스레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던지요. 어젯밤 ‘당신과는 끝’ 이라고 혼자 이를 갈던 마음은 온데 간데 없고, 보기 좋은 부녀의 모습에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철부지 남편과 둘째까지 낳고 33년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남편이 철없이 속을 썩일 때마다 저는 ‘아! 그때 마음 독하게 먹고 그냥 그만 둘걸’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정인가 봐요. 미운정이 더 무섭다더니, 그 미운정이 저를 붙잡아 두네요. 그때 침대에서 굴러 떨어뜨리길라도 해볼 걸 그랬나 봐요. ♥



야동 블루스

● 글_애청자

지 금으로부터 12년 전, 3박4일의 짧은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윤 병장에게는 임무가 하나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로 비디오, 즉 야한 비디오테이프를 반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부대 규율상 사제 물품, 특히 순진한 부대원들의 정서를 삼하게 흐트러뜨릴 수 있는 야한 비디오테이프의 반입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막는다고 되나요? 한창 혈기왕성하던 부대원들 역시 사회에서 야한 비디오 한번쯤은 보고 자란 대한민국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며칠 전, 부대원들의 여가시간을 풍부하게 활용하라는 의미로 휴게실에 중고 비디오테크를 마련했습니다.

비디오테크 설치 후, 볼 것이라고는 정신교육 비디오테이프뿐인 열악한 상황을 견디지 못한 부대원들은 야한 비디오테이프 반입이라는 간 큰 범죄를 모의, 실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야한 비디오테이프의 반입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워낙 소규모의 부대인지라 부대원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초소를 지키고 있던 헌병들 역시 같이 한술밥을 먹는 입장이자 야한 비디오를 우리 내부반에서 먼저 본 후, 순서대로 돌려보겠다는 약속으로 쉽게 부대로 반입할 수 있었습니다.

윤 병장이 야한 비디오테이프를 무단 반입한 날,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지 내부반 전체 회의를 하였습니다. 마치 쿠데타를 모의하듯 숙의를 거듭한 결

과, 가장 안전하게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시간은 금일 일석 점호 후로 정하고, 일석점호 후이므로 당연히 장소는 내무반이 되었습니다. 휴게실에 있는 비디오테크를 당직사관 몰래 내무반으로 옮겨놓기로 했지만 안전장치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비디오테크는 내무반에 들고 와 침상 밑에 숨겨놓더라도 텔레비전과 연결해 야한 비디오를 볼 때, 순찰을 도는 당직사관에게 발각되더라도 하면 전원 영창을 가거나 군기교육대에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일석점호 후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내무반 창문을 신문지나 담요로 가린 적은 있지만 그 정도의 안전장치로는 안심할 수가 없는 아주 위험한 프로젝트였기에 고민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야한 비디오를 보고 싶은 마음에 평소보다 몇 배나 머리가 꺾꺾 돌아간 한 일등병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콤식 안전장치였습니다. 도난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원리를 내무반 보안에 응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텔레비전과 비디오테크의 전원을 켜는 멀티탭의 전선을 연장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접촉식 연결 부위를 만들고, 이를 문지방에 설치해 벽의 전원 코드에 꽂으면 흑시라도 누군가가 문을 열면 접촉식 연결 부위가 서로 떨어지게 되어 텔레비전과 비디오의 전원이 동시에 꺼져버리는, 사회에서의 도난방지 기술을 응용한 나름대로의 최첨단 아이디어였습니다.

드디어 일석점호를 무사히 마치고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모험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안전장치로 인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즐거운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사불란하게 내무반원들을 지휘해 한 명은 휴게실로 가서 비디오테크를 가져오고, 다른 몇몇은 안전장치를 문지방에 설치하고, 바깥으로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담요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병장들은 텔레비전 가까운 곳에 누워서, 이등병과 일등병들은 침구



위에 정자세로 앉아 야한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별 설명도 없이 등장한 남녀가 바로 침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내무반에는 침삼키는 소리만 푹푹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직사관이 일찍 순찰을 마치고 당직실에서 드라마를 볼 요량이었는지, 평소보다 빨리 순찰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우리는 안전장치만 믿

고 야한 비디오 삼매경에 빠져들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내무반의 문 밖에 도착한 당직사관이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순간 내무반 광경에 놀란 당직사관이 소리쳤습니다.

“어! 뭐야. 이거. 야! 너희들... 뭐야! 이 자식들이 단체로 미쳤어? 내무반장! 내무반장 어디 갔어! 이 자식들 왜 이래?”

당직사관이 문을 여는 순간 텔레비전과 비디오의 전원이 ‘퍽’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불 꺼진 내무반에서 일부는 자리에 누워, 일부는 자리에 앉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흘러난 듯 불 꺼진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내무반원들의 뒤통수는 당직사관에겐 너무나도 피기스럽게 다가왔고, 순간 당직사관은 패닉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건 당직사관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장치만을 믿고 있던 내무반원들 역시 절망에 빠지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아지경에 빠져 바라보던 텔레비전이 갑자기 ‘퍽’ 하고 나가고, 뒤통수에 대고 호랑이 같은 당직사관이 벌벌벌 떨며 소리치는 상황을 어찌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서로가 놀라 어색한 시간이 흐를 때 제대를 며칠 앞두고 있던 ‘갈참’ 공병장이 나서서 당직사관에게 “하하 죄송합니다, 애들이 낮에 사역하느라 좀 피곤했습니다. 바로 취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하면서 둘러앉았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긴 했지만 뭐라 뽐족하게 책잡을 구석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던 당직사관 역시 깨를 치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음! 그래. 그래야지. 앞으로 아무것도 안 나오는 텔레비전 보면서 앉아 있거나 하지 말고 제때 자야 한다! 알겠지. 내 오늘날 봐준다” 하면서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제대할 때까지 다시는 내무반에서 야한 비디오를 보지 않았고, 부대 규율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모범 내무반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



첫사랑의 추억

● 글_김미애 | 전남 순천시 생목동

저에게도 잊지 못할 풋풋한 사랑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키가 컸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잠깐 농구선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운동신경과 상관없이 일단 키가 크면 무조건 선수로 뽑혔습니다.

졸지에 농구선수가 된 저는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운동장 한쪽에 책가방을 던져놓고 농구 연습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녹초가 되어 늦게 들어오는 막내딸을 보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야야. 인자 농구 그만한다고 선생님께 말하든 안 되겠냐? 공부하라고 학교 보내냈는데 허구헌날 농구하느라 파김치가 돼갔고 들어오니 이 에미 뎀이 뎀이 아니여. 그리고 내년엔 6학년이 되는데 인자 서서히 공부도 마음잡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여.”

저는 농구에 별로 취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농구를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박수환이라는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해 여름, 수환이가 다니는 중앙초등학교와 우리 학교의 농구시합이 있었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었고, 후보 선수인 저는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난히 눈에 띄는 상대팀 선수가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마치 동화 속에서 걸어나온 왕자님 같았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우리 팀을 응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아이가 속해 있는 상대팀을 응원했습니다. 쿵닥쿵닥 뛰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고, 그 아이가 뛰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행복했습니다.



그날 경기 후, 한동안 눈에 띄지 않던 그 아이를 다시 만난 것은 4개 초등학교 농구팀 경기가 열린 시민체육관에서였습니다.

경기가 모두 끝난 후, 저는 조용히 그 아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저가... 너, 농구 참 잘하더라. 난 김미애라고 하는데 넌 이름이 뭐니?”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쩌하나 내심 걱정했는데 그 아이는 “응? 난 수환이라고 해. 박수환. 그래 반갑다” 하며 순순히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몇 차례의 경기에서 수환이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우리는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수환이와 난 농구부에서 만난 인연으로 풋풋한 사랑을 싹틔워 갔습니다.

6학년 졸업식을 하던 날, 서로에게 자그마한 선물까지 안겨주며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수환이는 중학교도 장학생으로 다녔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우리는 자주 만나 서점에도 같이 가고,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를 하며 사랑을 싹틔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환이가 던지시 말했습니다.

“미애야, 우리 집 서울로 이사가. 아빠가 서울로 발령이 났거든. 난 이곳이 좋은데 아빠 때문에 할 수 없이 서울로 가는 거야. 이제 네 얼굴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 아빠 직장 때문에 이사 가는 건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우리 편지 서로 주고받으면 되지 뭐. 야, 너 서울물 먹으면 얼굴도 하얘진다는 데 넌 좋겠다. 서울 여자애들은 정말 예쁘다던데...”

“그래? 네가 어떻게 알아? 서울 애들이 예쁘다는 거?”

“우리 이모가 서울에 살잖아. 이모가 그러던 걸? 나보고 대학생이 되면 꼭 서울에서 학교 다니라고 하시더라. 히히히.”

웃기는 했지만 수환이가 서울로 간다는 말을 듣고 내심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영영 잊는 건 아닌지’ 속으로 불안하기도 하였지만 수환이에게 내색할 수 없었기에 속으로만 삭히고 말았지요.

그렇게 수환이는 서울로 전학을 갔고, 편지 몇 통과 전화를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누워 어린 시절을 회상하다보면 해맑은 미소를 머금고 내게 말을 건네던 수환이의 모습이 아른거려 잔잔한 미소가 번지곤 합니다. 비록 어린 시절이긴 했지만 내게 있어서는 풋풋한 첫사랑의 기억으로 남아 있는 추억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박수환’. 지금쯤 누군가의 남편으로 잘 살아가고 있지요.

‘수환아! 나 기억하겠니? 가끔은 어린 시절의 네가 무척이나 그럽다.’ ♥

딸의 변화

얼마 전, 아내의 고향친구가 얼굴 흉터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이 회사 근처인지라 퇴근 후 아내와 같이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면서 아이들끼리 저녁을 먹게 한 것이 미안해 단골집에 가서 만두를 사왔지요. 맛있게 만두를 먹는 아이들을 보던 아내가 갑자기 “나, 코 성형수술 좀 해줘요” 하고 농담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한 번 쳐다보고는 ‘어림도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딸의 코를 잡고 장난을 쳤습니다.

“이궁, 우리 딸 코 성형수술을 해줘야 하는데…”

순간 딸은 눈을 하얗게 뜨더니, 획 돌아서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딸의 반응에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장난을 좀 친 걸 가지고 울다니? 평소에도 아이들과 장난을 많이 치는 편인데,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구리를 툭 쳤습니다. 빨리 딸을 달래주라는 것이지요. 저는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모른 척했습니다. 아내가 눈을 한번 흘기더니, 딸을 달래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장난친 거야. 어진아…” 하며 간지럼을 태우고, 어르고 달랬습니다. 눈은 텔레비전에, 귀는 아내와 딸에게 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드라마를 몇 편 본 것처럼 길게 느껴지더군요. 딸의 울음이 차츰 웃음으로 변해가자 비로소 드라마 내용이 제대로 귀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제 앞에 딸이 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코 가지고 장난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럼, 재미있지.”

순간 딸의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는 싶더니… 벌떡 일어나 제 방으로 들

어가 영영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서럽게 우는 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방심한 결과입니다. 딸이 다 풀렸다고 생각해 장난기가 발동했던 것이지요. 딸은 아버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허, 참. 내 말이 그렇게 심했나?’

딸의 반응에 당혹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겨우 진정시켰더니 애를 또 울려요. 얼른 가서 달래줘요.”

저는 또 다시 외면했습니다. 장난을 좀 친 걸 가지고 저렇게 서럽게 울다니! 딸의 지나친 반응에 차츰 짜증이 났습니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 다시 딸을 달래주었습니다.

“누나, 왜 그래요?”

“글쎄다. 아버지도 잘 모르겠는데…”

누나와 두 살 터울인 아들도 눈치가 있는지 같이 놀아달라고 하지도 않고 조용히 혼자 놉니다. 영영 우는 소리, 달래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그리고 침묵… 집안 분위기가 ‘싸아!’ 하더군요.

한참 후에야 울음을 그친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괜히 미안하고, 무안하고, 서운하고, 쑥스럽고… 저는 슬그머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딸이 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딸이 조금 낮은 코에 콤플렉스를 느끼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나친 반응을 보이는 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기에는 마음이 허락하질 않았습니다. 그 때 아내가 들어와 제 머리맡에 앉더니 한 마디 하더군요.



칭찬의 기술

“우리 딸이 사춘기가 시작된 게 아닐까?”

아! 그래서야 형클어졌던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만 다섯 인 집에서 성장한 저는 딸의 변화에 둔감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딸을 어린아이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딸은 몸도 마음도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딸을 대하는 아버지는 과거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지요. 신체에 민감한 나이이고, 더군다나 꾸미는 데 부쩍 관심이 많아진 딸인데 약간의 콤플렉스를 느끼고 있는 코를 잡고 농담을 했으니, 꼬마숙녀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러고 보니 요즘 딸이 무척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목욕을 하고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나왔는데, 요즘에는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는 제 방으로 후다닥 뛰어 들어갑니다. 동생과 욕조에 물을 받아 목욕하는 것을 좋아하더니만, 동생과 같이 샤워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딸이 샤워할 때 손을 씻으러 들어가면 “아버지, 나가세요” 하며 쑥쓰러워합니다. 퇴근해 집에 들어가면 “다녀오셨어요” 하며 안기는 딸이 엉덩이를 뒤로 쪽 빼고 상체만 앞으로 기울입니다.

열한 살에 사춘기래! 이제 시작일 것입니다. 딸은 세상의 모든 고민을 혼자 짊어진 것처럼 행동할 것이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 속에 나 혼자뿐이라 생각할 것이고, 마음은 안 그런데 날카로운 말과 신경질이 앞서 갈 것입니다. 착하고 안전한 엄지공주에서 ‘말괄량이 삐삐’가 될지도 모릅니다.

겨우 형클어졌던 퍼즐을 다 맞춘 소심한 아버지는 차마 밖으로 나가 딸에게 ‘미안하다’ 사과를 하지 못하고 방에서 문자를 보냅니다.

‘어진애! 미안해.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렇게. 사랑해.’

진짜 아버지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

● 김정수 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둔 아버지로,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글로 써 매체에 기고하고 있는 시인이다. 시집으로 (서랍 속의 사랑)이 있으며, 책 만드는 것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조금은 넓은 아버지다.

오래된 제자와의 만남은 가슴 설레는 일이다.

제작년 기업은행에 입사한 제자 도형이. 입사시험에 합격한 뒤 교무실로 찾아와 녀석 옆드려 큰절을 하며 “선생님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하고 겸손해했던 제자다.

일요일 저녁에 내 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다.

“선생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그래, 알았다. 목 빼고 기다릴게. 차 두고 오너라. 소주도 한 잔 하게.”

“네, 선생님!”

서울에서 내려오는 제자를 맞이하러 정거장에 나갔다. 제법 쌀쌀한 겨울바람에 턱이 시리다.

“아, 선생님! 나와 계셨어요?”

그레이블루 코트에 머플러를 휘날리며 버스에서 내리는 제자를 보니 가슴이 벅차다.

“도형아, 멋지구내! 장하다, 장해!”

2년 만에 보는지라 반가움에 몇 번이고 등을 쓸어 주었다.

인근 음식점에서 갈빗살을 구우면서 물었다.

“그래, 은행 일은 재미있고?”

“네, 제가 입사동기회 부회장을 맡고 있어요. 은행 일도 무척 재미있어요.”

지적인 안경테가 잘 어울리는 도형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윤기 흐르는 얼굴에는 자긍심이 넘친다.

도형이는 고3 때 교실 칠판 지우는 일을 전담으로 맡아 아주 성실하게 봉사했다. 매 시간마다 칠판을 지우고 지우개를 터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10분 쉬는 시간의 절반을 할애해야 하고, 8교시가 끝날 때까지 매시간 반복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도 도형이는 1년 내내 한 번도 이 일을 거른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분필 가루가 칠판 턱에 쌓이는 일도 없었다. 물걸레를 곁에 두고 수시로 닦아냈기 때문이다.

“도형아, 칠판이 늘 깨끗하니 교실이 상쾌하구나. 고맙다.”

툼툼이 듣는 칭찬에 도형이는 멧쩍어하면서 웃었다. 도형이는 공부도 성실하게 했다. 그러나 요령이 부족한 탓인지 성적이 뛰어나지는 못했다. 도형이는 그해 4년제 대학 입시에서 모두 낙방했다.

“선생님께서 그때 저를 붙잡아 주셨죠. 마지막에 전문대 원서를 들고 선생님을 찾아 갔을 때를 기억하세요? 무조건 재수해라! 반드시 네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거다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제게는 어떤 암시랄까, 계시처럼 들렸어요.”

“그랬구나. 하지만 너는 네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누군가의 암시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아도 원래부터 충분한 능력이 네게 있었던 거야.”

“늘 칭찬해 주시니 부끄럽습니다.”

긍정적인 격려나 칭찬은 인간의 성장을 돕는 훌륭한 촉매다. 그래서 젊은 부모들은 칭찬의 기술을 활용하여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려 애쓴다. 그러나 중년의 부모들은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키워서 실패했다고 한숨을 쉰다. 부모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제멋대로 구는 아이가 되었다고. 이러한 모순의 원인은 칭찬의 기술을 오해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칭찬에는 진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을 불러온다. 진심으로 하는 칭찬과 다른 목적이 있는 칭찬을 아이들은 정확하게 구별한다. 후자의 경우, 칭찬하는 입과는 달리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칭찬을 들어도 그 의도를 알고 씩씩해한다. ‘우리 엄마는 늘 저런 식이야!’

칭찬은 일관되게 또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밥 잘 먹는다고 열 번 칭찬하다가 “돼지 같은 놈!”이라고 한번 소리치면 아이는 부모를 예측불허의 변

덕쟁이라고 생각한다. 변덕쟁이의 칭찬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조건이 달리는 칭찬도 바람직하지 않다.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일류대학에 합격할 게 틀림없어. 노력만 한다면...” 아이는 앞의 칭찬이 기쁘기보다 뒤에 붙은 조건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 ‘현재는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조건이 붙은 칭찬은 아이를 격려하려는 부모의 의

도와는 달리 자녀에게 질책이나 핀잔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진정성이 있고, 일관성 있으며, 조건 없는 칭찬은 자녀에게 기쁨을 준다. 이러한 기쁨은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 주고 성취동기를 불러일으키며 자발적인 노력을 촉발시킨다. 가식적이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조건부로 하는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는 표어는 칭찬에도 적용된다. 칭찬하고 싶어도 도대체 칭찬할 거리가 없다고 탄식하지 말자. 부모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노여워하지 말자. 자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 부모님은 칭찬해드리고 싶어도 할 거리가 없어. 도대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아이들을 바라보자. 어릴 때 갖은 애교로 부모를 기쁘게 해준 아이들이 아닌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아서 고맙고, 곁에 있어서 늘 고마운 우리 아이들이 아닌가. ♥



● 신규진 씨는 ‘자기 존중감을 살리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싶어하는 서울 경성고등학교 과학, 상담 교사, 상담 경험을 <기쁘다고 실망하는 아이는 없다> 등의 책으로 엮었다.

기초 예절이 부부를 지킨다



자녀를 열 명 둔 아버지가 있었다. 밖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 언제나 아이들 열 명이 아내와 함께 우르르 달려나와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하고 아버지를 맞곤 했다. 그날도 귀가하자 아이들 열 명이 달려나와 아버지를 맞았다. 그런데 여느 날과 달리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열 명의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다들 어디 갔니?”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우화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느라 뒤도 안 돌아보면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기분이 나쁘죠. 사람이 들어왔는데 저렇게 관심이 없나. 내가 도대체 이 집에서 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남편들만 그런 게 아니다.

“휴일에 남편이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외출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하니깐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서 나간대요. 궁금했지 만 캐물으면 서로 부딪칠 것 같아 참

았지만 마음이 꺼림직한 게 내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 사람한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 첫 번째는 출입시에 반드시 아내에게 고하는 것이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 첫 번째는 남편이 귀가하면 자리에 서 일어나 맞이하는 것이다.’

불가의 가르침 《육방예경》에 나오는 말이다.

사실 이 정도는 부부 사이를 좋게 하는 비결로는 좀 시시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생각이 부부생활의 함정이 된다. 사람들은 흔히 남녀관계에서는 어떤 짜릿함이나 자극적인 매력이 생명이라는 생각에 치우쳐 남녀관계도 그 기초는 인간관계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마치 음식의 새콤달콤한 맛이 소금으로 밑간이 맞춰진 다음에야 우리의 미각을 기분 좋게 자극하는 것처럼 인간관계의 기본예절이 갖춰진 토대 위에서만 남녀 사이의 짜릿한 감정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남편은 자상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가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게 성에 차지 않으면 ‘너, 지금 뭐하냐? 놀고 있네’ 그래요. 그건 남편의 말버릇이에요.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친구들과 그런 말을 많이 써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저는 그렇게 기분이 상할 수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저에게 자상하게 신경을 써주는 순간에 그 말이 떠오르며 ‘이게 진심일까’ 의문이 일어어요.”

“윤전연수를 남편에게 하면 이혼

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어이구, 이런 등신’ 하는 순간, 시동도 안 끄고 차에서 내렸어요. 남편은 분발하라는 뜻에서 그런 거라고 변명했지만 지금도 속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섹스를 하다가도 그 말이 떠오르면 순간 몸이 싸늘해져요.”

“가끔 아내가 결례질을 하거나 장롱을 열려고 할 때 앉아 있는 나를 밀면서 ‘저리 좀 가 봐’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살짝 미는 정도지만 머리를 툭 치거나 발로 몸을 건드리면 기분이 확 상하지요. 부딪치면 분위기 나 빠지니까 그냥 넘기지만 속으로 ‘정말 배운 거 없네’ 정 떨어지죠.”

예절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 나를 무시하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다. 사랑의 토대는 다름 아닌 ‘존중’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한다면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아, 됐어. 시끄러.”, “거기 되게 좋알대네(그만 짓어라).”, “당신은 몰라도 돼.” “제발 나 좀 내버려 뒀.”, “도대체 잘 하는 게 없어.”, “정신 어디다 두고 사냐”, “말 같지 않은 소리하지 좀 마.”

부부가 존댓말을 쓰면 이런 말은 못한다. 아니 나오지 않는다.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다.

존댓말을 쓰는 부부를 놓고 그만큼 거리감이 있는 게 아니냐고 보는 사람도 있다. 서로 말을 놓고 농담을 나누고 부담없이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은 남녀 사이에서 친근한 감정 표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이 함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어찌하다보면 친근감이 함부로 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쉽다. 친근감이 예절이라는 형식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예절이 긴장을 가져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랑의 좋은 점 중 하나는 긴장을 해소해 준다는 데 있다. 부부란 어른이 된 다음에도 어리광을 부릴 수 있고, 무리한 요구도 해볼 수

있는 상호 부모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부부가 서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좋은 관계에 필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편안함이라는 것이 자기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

“부부간에 그것도 이해를 못해주느냐, 나는 믿고 그랬던 것이다. 내 마음 알지 않느냐.”

이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며 관계성을 모르는 미성숙이다. 관계의 편안함은 상호주의가 핵심이다. 상대가 무시당했다는 불쾌감을 반복해서 느끼면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옛말에 친할수록 예의를 지키라고 했다. 부부는 일촌의 간격도 허하지 않는 가까운 사이, 무촌이다. 그렇다면 가장 철저히 예의를 지켜야 하는 사이는 부부가 아니겠는가. ♥

● 오숙희 씨는 개인 상담소 ‘해심터’를 운영하며 방송과 강연, 집필 등 대중적인 여성학자로 활동중이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서 어떤 결혼이, 어떤 만남이 더 성숙한 결혼 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우거지 돼지등뼈 감자탕

이달의 요리는 ‘우거지 돼지등뼈 감자탕’ (2009년 1월 23일 방송)입니다. 감자탕에는 감자보다 뼈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자탕’이라고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감자탕은 원초적인 음식입니다. 양손에 들고 뼈에 붙어 있는 살을 입으로 떼어 먹다보면 입 주위는 기름범벅이 됩니다. 뺏속에 숨어 있는 살은 젓가락으로 썰어 남김없이 발라먹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에 묻어 있는 부스러기 살까지 짹짹 소리를 내가며 빨아먹어야 제대로 감자탕을 먹었다고 하겠지요. 깨끗하게 살이 발라진 뼈들의 높이만큼 배가 볼록해져야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게 감자탕입니다.

자 그럼, 감자탕에 얹힌 구수한 사연을 들어볼까요?



무더운 여름, 친구의 고향인 영양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고추밭을 지나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친구의 이름을 부르더군요. “아따 휴가라고 오나? 퍼뜩 일로 오나 감자탕 한 그릇 묵고가라.” ‘이 더운 날에 감자탕이라니?’ 어르신이 부르는 곳으로 갔더니 장작을 피우며 큰 가마솥에 감자탕을 끓이고 계시더군요. 친구와 전, 동네 어르신이 건네는 감자탕과 보리밥을 받아 나무그늘 밑에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도 매콤하고, 여름이라 그런지 시래기 대신 신김치와 부추를 잔뜩 넣고 끓인 감자탕이었습니다. 우린 정신없이 뼈에 붙은 살을 발라먹고, 남은 국물에 보리밥을 말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손정호 님

큰아이를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게 정말 많았죠. 하루는 감자탕이 먹고 싶었어요. 남편과 같이 먹으러 갔죠. 한참을 걸어 왕복 6차선 길만 건너면 맛있는 감자탕집! 횡단보도는 좀 먼 곳에 있었는데, 녹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뛰어!” 하더군요. 열걸에 저도 뛰었어요. 헉헉거리며 고개를 드는 순간 무표정한 경찰아저씨가 짹! “무단 횡단하셨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가슴은 쿵다쿵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는 남편은 “아내가 임신했는데 감자탕이 먹고 싶다고 해서요. 죄송합니다” 하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경찰아저씨는 “그럼 더 조심하셔야죠” 하면서 법칙급 용지를 주셨습니다. 비싼 감자탕이었지만, 그래도 감자탕은 맛있었어요.

-박은진 님

저희 부부가 한창 연애를 하던 시절, 감자탕을 먹었습니다. 당시 감자탕은 저희 부부의 열렬한 사랑을 받던 메뉴 중 하나였죠. 감자탕을 정말 사랑한 을 남편... 처음엔 큼직한 고기를 발라서 먹고, 뼈와 살의 분리 작업에 들어가고, 그리고는 국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맛있게 먹었지요. 그런데 맛있게 먹던 을 남편의 작은 비명! “나, 목에 가시 걸렸나봐!” 생선가시가 목에 걸리면 밥을 씹지 말고 넘기거나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안 넘어가고 통증이 심해져 다음날 이비인후과에 가서 목에 걸린 1cm가 안 되는 뼈를 빼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남편은 3년이 넘게 감자탕을 멀리했습니다. 지금은 저의 꼬임에 다시 넘어와 감자탕을 사랑하고 있죠. 그래도 이제는 국물에 밥은 안 말아먹습니다.

-어미정 님

지난해 12월 중순, 이웃끼리 조출한 송년회를 위해 5가족이 감자탕집에 갔습니다. 몇 달 전에 이사 온 50대 중반 박씨 부부도 참석했는데, 3개의 감자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씨 아주머니는 감자탕을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열심히 건져냈습니다. 잠시 후, 우리 자리로 오더니 “아이구, 여기는 감자를 싫어하냐며? 몸에는 고기가 좋으니까 고기들 많이 드슈” 하면서 감자와 시래기를 건져가는 겁니다. 뼈에 붙어 있는 고기도 맛있지만 대개 감자탕 안에 든 감자와 시래기를 더 좋아하잖아요? 갑자기 당한 일이고 아직 친하지 않은 이웃이라, 다들 황당한 얼굴! 먹는 것 가지고 차사하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식 없는 분이 우리 동네에 이사 오다니! 그날 송년회의 기분은 완전히 망쳤고, 다음부터는 그 집 부부 참석시키지 말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 양광규 님

어릴 적, 식육점을 하던 어머니께서는 겨울이면 돼지뼈를 푹 삶아 시래기를 듬뿍 넣은 얼큰한 감자탕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바쁘기도 하였고, 원래 장사하는 사람이 좋은 거 못 먹는다고, 잡뼈가 아까워 큰술에 가득 감자탕을 해놓으면 보름도 넘게 그것만 먹고 지내야 했죠. 한번은 일주일 넘게 감자탕만 먹다가 너무 지겨워 어머니께 반찬투정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반찬투정이나 하는 한심한 아들이라고 역정을 내셨고, 저는 밥을 안 먹겠다며 일어서다가 실수로 상이 었어졌죠. 그 바람에 뜨거운 국물이 어머니에게 쏟아지는 걸 보고 깜짝 놀라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행주로 다리를 닦아드렸습니다. 어머닌 그때 일을 회상하시며, 뜨거운 국물보다 가슴이 더 아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많이 먹어 지겨워서인지, 어머님께 상처를 드려서인지, 감자탕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 조대현 님

cooking recipe

● 레시피_우영희(요리연구가)



우거지
돼지등뼈
감자탕

재 료

돼지등뼈 12~15kg ● 찬물에 3~4시간 담가 핏물을 제거한다.

감자 5~6개 ● 껍질째 찢어서 준비한다.(나중에 껍질 벗겨 국물에 넣는다.)

우거지 200g(삶은 것으로) ● 3~4cm 길이로 잘라 준비한다.

깻잎 20장 ● 1.5cm 두께로 가로로 썬다.

미나리 50g ● 4~5cm 길이로 잘라 준비한다.

대파 2대 ● 미나리와 같은 길이로 썬다.

양파 1개, 생강 2조각, 청양고추 3개 ● 등뼈와 함께 삶을 때 넣는다.

양념장

고춧가루 3~4큰술, 홍고추 간 것 3큰술, 다진마늘 2큰술, 된장 2~3큰술, 호령 1/2큰술, 참기름 1큰술

만들기

- ① 찬물에 핏물을 제거한 돼지등뼈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낸다.(20% 정도만 겉면이 익도록 한다.)
- ② 끓는 물 3리터에 대파·생강·양파·청양고추를 넣고, 돼지등뼈와 함께 1시간 20분 정도 중불에서 끓여 등뼈와 국물을 따로 분리해 준비한다.(체에 받혀 나머지 야채들은 버린다.)
- ③ 삶아놓은 우거지에 양념장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냄비에 달달 복다가 등뼈 우러낸 육수와 등뼈를 넣고 끓인다.
- ④ 끓기 시작하면 대파·미나리·깻잎과 감자를 올려 다시 한 번 끓인다. 향에 따라 들깨가루를 넣어 먹기도 한다.

Tip

돼지등뼈를 반드시 찬물에 3~4시간 담가 핏물을 제거해야 냄새가 없는 깔끔한 감자탕을 끓일 수 있다. 돼지뼈를 사용한 국물요리이므로 향신채 미나리, 깻잎을 넣어 육류에서 나는 누린내를 중화시킬 수 있다.

80년대의 귀환

●●● ‘왕의 귀환’ 이란다. 얼마 전, 공중파 TV로 돌아온 최양락의 얘기다. 최양락이 MBC <명랑히어로> 등의 토크쇼에서 오랫동안 참아왔던 수다를 풀자 시청자의 반응은 말 그대로 ‘터졌’고, 그 여세를 몰아 SBS <야심만만>의 MC로 고정출연하고 있다.

최양락이 공중파 TV에 복귀하자마자 반응을 얻은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1980년대 최고의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이던 KBS <유머일번지>에 출연하던 그 시절부터 최양락은 늘 시대를 앞선 개그를 선사했다. 훗날 그의 실제 부인이 된 팽현숙과 함께 출연한 <유머일번지>의 ‘남 그리고 여’에서는 늘 팽현숙을 속 썩이는 캐릭터를 연기하며, 그 당시에는 보기 드문 ‘딤상 캐릭터’를 선보였다. 그가 여자를 유혹하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어설픈 제비를 연기한 <유머일번지>의 ‘고독한 사냥꾼’은 약간의 성적 유머를 곁들여 신선한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 김학래와 함께 서로 웃는 얼굴로 온갖 야유를 퍼부어(잘못을 들춰내며) 상대방의 속을 뒤집어놓는 <유머일번지>의 ‘괜찮아유’는 지금도 MBC <무한도전> 출연진들이 패러디할 만큼 재미있는 개그코너였고, KBS <쇼! 비디오자키>의 ‘네로 황제’는 과감한 시사풍자를 시도하기도 했다.

2000년대가 되면서 당시 코미디언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가운데에도 최양락이 MBC <코미디하우스>에서 ‘알까기’, ‘100초토론’ 등을 성공시켰던 것은 이런 감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최양락에게 쏟아지는 관심은 단지 최양락만의 힘은 아니다. 최양락에



대한 관심은 80년대에 대한 그리움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최양락이 <명랑히어로>에서 큰 반응을 얻은 것은 이봉원·김정렬·김한국 등 80년대 인기 개그맨들과 얹힌 일화를 이야기하면서였다.

최양락뿐만이 아니다. 이선희는 KBS <해피선데이>의 ‘불후의 명곡’에서 세월을 잊은 듯한 가창력으로 큰 반응을 얻은 뒤 새 앨범을 준비중이고, 산울림으로 70~80년대를 풍미한 김창완은 지난해 말 김창완 밴드를 결성해 10여 년 만에 새 앨범을 냈다. 80년대의 ‘아이돌 스타’라 할 수 있는 전영록도 새 앨범을 내고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요즘 미니시리즈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MBC <에덴의 동쪽>은 70~80년대를 주 무대로 한 시대극이다. 최양락의 귀환은 ‘80년대의 귀환’이기도 한 것이다. 이는 단지 80년대를 겪었던 지금의 중장년층이 그 시절에 대한 단순한 향수를 느끼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 시절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80년대는 순수함이나 선함이라는 것이 여전히 통용되는 시대였다.

1980년대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마지막 ‘순수의 시대’인 셈이다. 그러니 최양락의 귀환이 반갑지 않을 수 있는가. 그의 귀환에 웃는 사람들을 보며, 여전히 우리에게 기본 좋은 웃음, 순수한 마음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진다. ♥



손여덟 나의 기도는

내 나이 서른일 때 우리 엄마의 기도는 “그저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나의 눈을 가져 가셔도 좋겠습니다”였다. 내가 석 달 시한부 인생일지도 모른다는 병원측의 말을 듣고 밤새 올린 엄마의 기도다. 사람마다 인생의 즐거움을, 중요함을 거는 게 다르지만 우리 엄마는 유독 눈이 탐하는 바가 많은 사람이다. 책 읽기, 남의 작품 살피기, 그림그리기, 수놓기 그런 것에 감탄하고 그것에 대해 얘기하고, 빠져들고, 꿈을 꾸는 사람이다.

난 그때 엄마의 기도내용을 듣고 ‘뚝’ 하니 한마디 던졌다.

“엄마,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거야? 두꺼비 집짓기야? 헌집 줄게 새집 달라고? 기도하는 식이 틀렸어. 엄마라는 사람의 눈이 하나님한테 무에 그리 대수울까? 그건 엄마한테나 중요한 거지!”

아마도 병원측의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듣고, 엄마의 가슴 한가운데는 ‘썩’ 하고 아리면서 빼개질 정도로 엄청 아팠을 것이고, 가장 소중한 눈을 잃더라도 큰딸이 살아나기를 바랐을 것이다.

내 나이 손여덟에 나의 기도는 “엄마가 제발 아프지 말고 평

안하게 앞으로 10년 만 더 사셨으면...”이다. 2008년에 휴가를 안 썼다고 2009년에 덧붙여 주는 것도 아닌지라 12월 하순께 떠밀리듯 휴가를 다녀오니 엄마의 기침이 영 심상찮아 보였다. 동네병원에서 “이번 감기가 그래요, 오래가요” 해도 간단해 보이질 않았다. 평소 딸 셋 다 합쳐도 못 당할 기운이신데, 아무래도 사단이 나긴 난 모양이었다. 여러 가지 최첨단 검사를 한 뒤, 병원측에선 다시 몇 가지를 집어 정밀검사를 권했다. 날이 추워 미루면서도 한 가지는 했고, 조직배양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어 달 집에만 계시더니 몸이 휘지는지 한번 검사하고 나면 기가 빠져 며칠을 헤맨다.

엄마가 편찮으시면서 비로소 내 주변에 엄마 없는 이들의 허전함과 서러움을 심각하게 생각했다. 스물둘에 나를 낳으셔서 새해 여든이 되셨다.

어느 날, 후배가 우리 집에 놀러 와서는 내가 “엄마, 엄마” 부르는 소리를 엄마 없는 자기가 들으려니 너무 서글프다고 했다. 그 말을 나는 머리로만 알아들었지, 가슴으로 듣지는 않았다. 그저 그런가보다. 만약 엄마가 떠나시면 어쩌나,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정신을 놓아버릴 것 같다. 일 따윈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모시고 살면서 제대로 무얼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게 없다. 그냥저냥 드나들며 건네는 말 몇 마디뿐이었다. 하고픈 것 하시라고 고개 끄덕여 드린 것뿐, 마음에서 우러나 애뜻하게 챙겨드린 게 없다.

엄마가 없어 누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에 서글프다는 후배의 말을 귀로만, 머리로만 알아 들은 것처럼 내 마음속 어느 줄 하나가 같은 울림으로 공명하듯 울어주었던 것이 아님을... 앞으로는 강석우가 어머니 사연에 매번 울먹이는 그 심정을 조금은 알 것도 같다.

어떤 검사결과가 나오든 엄마가 떠나시기 전 주어진 이 시간이 마음 깊이 고맙다. 매일 아침·점심·저녁을 내 손으로 챙겨드릴 수 있다는 것, 몇 분 동안이라도 엄마 방에 들어가 일상의 뻔한 이야기라도 마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일 제쳐두고 일찍일찍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다고맙다. ♥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얼마 전, 모 영화사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오랜만에 충무로 가는 길은 약간 설레기도 했다. 장충단공원을 지나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 앞에 이르자 도로에 차들이 꽉 찼다. 종종 지나다니는 길인데, 오늘따라 이 길이 유난히 새롭다. ‘저 호텔은 옛날 나 어릴 적에는 금수장이라는 여관이었는데...’ 싶었다. 맞다. 한 5, 6층 정도 되는 그 당시에 도 작지 않은 건물이었다. 목정동에서 금수장으로 올라오는 언덕길은 겨울이면 바람이 너무 세서 옷깃으로 가슴팍을 여미고도 등으로 바람을 지고 걸어도 귀때기가 날아갈 지경이었다. 늘 응달이어서 낮은 쪽의 도로는 겨우내 얼음이 있었다.

퇴계로 5가에서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을 지나 장충단공원 가는 큰길은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옛날에는 이 길이 없었는데...’ 차안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니 호텔 건너편 골목 안에 적산가옥이 몇 채 보였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거기는 부자동네였다. 아랫동네서 고만고만하게 살던 친구녀석이 어느 날 그리로 이사를 갔다.

호텔 앞 큰 도로로 양분된 동네를 내 머릿속에서 잇기 시작했다. 엄청 큰 그 호텔은 5, 6층짜리 금수장으로 줄어들었고, 자동

차 가득한 도로에 좁다란 골목이 보였고, 집들이 지어졌고 대문들이 만들어졌다. 금수장을 왼쪽으로 끼고 돌아 비탈길을 조금 오르면 작은 공터가 있었다. 지금의 호텔 정문쯤 되리라. 내가 중학교 2학년 아닌 3학년쯤인가, 아마 3학년이었을까. 학교 다녀와서 저녁 무렵이 되면 살짝 불량기 있는 친구들이 모이던 곳이다. 그 당시 어른들 말씀대로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탈이라는 게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 정도였다. 요즘에 비하면 우리는 숨어서 피우는 매너라도 있었다.

우리는 골목골목을 헤매고 다녔다. 여럿이 모이면 장충단공원으로 몰려갔고, 거기서 또래들을 만나면 괜히 눈을 부라리는 게 전부였다. 내심 떨리면서도 아닌 척하며, 상대방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들을 제압하려고 어설픔게 인상을 쓰기도 했다. 나는 몰려다니는 무리에 끼어 있는 게 어색했다. 썩 어울리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내 자신이 늘 불안했다.

어느 날, 다른 조직(?)과 약간의 불미스러운 접촉이 벌어졌고, 나는 흥기를 들고 설쳤던 주범이 되어버렸다. 나는 처음으로 연락없이 집에 못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다. 친구 두 녀석과 다니던 교회 오르간 뒤에 피신했다. 그런데 새벽에 아버지가 경찰과 함께 들이닥쳤다. “여기 있네요.” 아버지는 나를 담담하게 지목하셨다. 차안에서 가만 생각해보니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셨다. 내가 거기 숨었으리라고 어떻게 짐작을 하셨을까. 겁에 질린 친구들을 뒤로 하고 경찰서로 끌려갔다. 다음날, 혼방으로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 계단을 내려서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나도 최소한 그런 정도의 아이는 아니었다. 지금 내 아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내 심정은 어떨까? 그때 낙담했을 어머니의 마음을 새삼 느껴진다. 아마 사춘기였나 보다. 벌써 37년 전의 일이다.

셋길로 차를 돌려 제일병원 앞으로 해서 한국의집 쪽으로 좁은 길을 지나 ‘참 길이 좁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빠져 나왔다. 차는 큰길로 접어들었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골목골목 추억을 쫓고 있다. ♥



첫 세배

여섯 살 때까지 설날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았던 기억이 없다. 할머니·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매일 보는 엄마·아빠한테 절을 하긴 부끄러웠다. 삼촌들은 아직 결혼 전이어서 세배를 받지 않고 조카들에게 용돈조로 세뱃돈을 쥐어 주는 방법을 택했다. 여섯 살 때, 친척(아빠의 사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이사를 오고 처음 맞는 설날에 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

설날 아침, 친척집에 모였다. 어른들은 안방에 모두 모여 언니·오빠(나와는 재종지간)들의 세배를 받았다. 가장 어린 나이였던 나는 부끄러워 몸을 배배 꼬며 방 한쪽 구석에 벽지마냥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절도 안하는 주제에 한복은 곱게 차려입고 있었다.

한 차례 세배가 끝나고 어른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방을 나가셨다. 방을 나가기 전, 어른들은 세배를 하지 않고, 구석에 꾸그리고 앉아 있는 내게 세뱃돈을 쥐어주고 가셨다. 1,000원 혹은 2,000원이었을 것이다. 지난 설 연휴에 방송중에 ‘세뱃돈 얼마나 주세요?’ 하는 문자를 받아보았는데, 대개 초등학생이 5,000~1만 원 사이였던 것을 감안하면 20여 년 전 여섯 살짜리 꼬마에게 1,000원짜리 한 장은 꽤 큰돈이었다. 어른들이 다 나가자 나는 친척언니에게 쫓르르 달려갔다. ‘나도 절 할 수 있는데...’ 하고 구시렁거리면

서, 집에서 제사지내는 걸 늘 보고 자랐던 나는 내가 아는 절을 언니에게 보여줬다. 언니는 그건 남자들이 하는 절이고 여자들이 하는 절은 따로 있다면서 절하는 법을 가르쳐줬다. 언니가 가르쳐 준 절은 <조선왕조 500년> 같은 TV드라마에서 봤던 큰 절, 일명 ‘폐백절’이었다. 두 손을 올린 채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래도 남자들이 하는 절보다 웬지 품 나고 예뻐 보였다.

언니가 절 가르치기를 끝냈을 때, 5촌 고모부(언니의 아빠)가 들어오셨다. 언니는 고모부에게 세배를 하자고 나를 꼬드겼다. 고모부가 세뱃돈도 주실 거라고 했다. 나는 절도 안 하고 받아 챙긴 세뱃돈이 머쓱했던 차에 ‘한 분뿐이니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처음으로 어른에게 세배를 드렸다. 그것도 ‘폐백절’로, 흐트러지지 않고 앉았다가 일어서며 무사히 절하기를 끝마쳤을 때, 고모부는 얼굴에 함박웃음을 짓고 계셨다. 수줍어서 언니·오빠들 절하는 걸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던 애가 금방 배운 절을 따라하는 게 기특해 보이셨던가보다. 고모부는 세뱃돈으로 5,000원을 주셨다. 초등학교 4학년인 오빠에게도, 중학교에 올라가는 언니에게도 풀지 않으셨던 거금이었다. 세뱃돈을 받아 기분이 좋은 것보다 어색함에 맞서 뭉가를 해냈다는 작은 성취에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얼마간은 세배하지 않고 세뱃돈을 받는 어린이로서의 특수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아래로 더 어린 사촌동생들이 태어나면서부터는 더 이상 어리광을 피우지 않게 됐다. 해가 바뀔수록 세뱃돈의 액수도 늘어났다.

친척들 앞에서 부끄러워 세배도 못 했던 아이, 한쪽 구석에 앉아 어른들이 주는 세뱃돈을 넘죽넘죽 받으며 “절도 안 하고 무슨 세뱃돈이냐” 하는 오빠들의 농담에 울음을 터뜨렸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 조카들 세뱃돈을 챙겨주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처럼 몸을 배배 꼬며 서 있던 조카들도 이제 절을 한다. 하지만 것처럼 한복을 차려 입거나, 친척집을 순회하며 단체로 세배하고 다니지는 않게 됐다. 창피해하는 나를 위해 열린 세뱃돈을 쥐어주시며 “잘했다” 하셨던 고모부도 돌아가셨다. 옛 일을 추억하며, 떡떡해진다. 나도 이제 서른이다. ♥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위한 시선

빈센트 반 고흐의 <꽃이 핀 아몬드 나무>

빈센트 반 고흐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테오가 결혼을 했을 때 반 고흐는 자신의 뒤를 봐주던 동생이 새 가정을 부양하느라 지원을 끊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동생의 도움이 없다면 먹고 입는 것은 물론 물감조차 살 수 없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형으로서 동생이 가정을 이뤄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없을 리 없었습니다.

<꽃이 핀 아몬드 나무>는 동생 테오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린 그림입니다. 반 고흐의 그림 가운데서는 드물게 부드럽고 화사한 그림이지요. 물론 유명한 <해바라기>처럼 반 고흐의 그림 중에는 밝고 화려한 그림이 적지 않지만, 이 그림처럼 다정하고 넉넉한 빛으로 다가오는 그림도 없습니다. 조카가 생겼다는 소식이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주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림입니다. 혈연의 정이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훈훈하게 피어오릅니다.

이 그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배경이 하늘색 일색으로 이뤄져 있어 공간의 원근을 별로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 하늘이 존재함에도 그림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하늘이 그리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지요. 하늘은 그저 하나의 예쁜 바탕으로 인식되고 그 위의 나뭇가지가 옷감 무늬 같은 디자인 패턴으로 우리 망막에 다가오게 됩니다. 자연의 한 장면이 한순간에 추상적인 아름다움으로 승화된 셈이지요.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그리워한 반 고흐의 시선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다가오는 봄을 맞아 우리 마음에도 이처럼 밝고 화사한 꽃무늬가 수놓아지면 좋겠습니다. ♥



*빈센트 반 고흐, <꽃이 핀 아몬드 나무>, 1890,
캔버스에 유채, 73.5x92cm, 암스테르담, 빈센트 반 고흐 미술관